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제1649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내년 예산안 '일자리 창출' 최우선 반영

기재부, 朴정부 4대 핵심사업 중심서 文정부 정책과제 중점 편성 추가 지침 마련

모든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205조 '재량지출' 10% 감축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
불공정거래 과태료·과징금 강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세금 감면 축소, 탈루 세금 과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과태료·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 지침'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양극화 완화·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추가 지침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가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 때 일자리 수 등 고용 효과를 명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방향은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신(新)중년·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안 추가지침에는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지원토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도 주문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이번 예산지침에 새롭게 추가했다.

새 정부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추진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기로 했다. 올해 계획한 재량지출 규모는 205조 원이다.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수입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해 탈루 세금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지침은 유효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안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재량지출을 10% 감축하고 재정수입 기반의 확대로 늘린 세수 등을 새 정부의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에 최우선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노조 동의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성과연봉제 제동 건 법원

朴정부 강압식 정책 존폐기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법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하위 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이 줄어든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 규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0%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주인 못찾은 자살보험금 1300억 결국 공탁으로

생보3社 지급률 60%대 수준
시효 지나면 보험금 회수 가능

진통 끝에 지급이 결정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이 정작 수령자를 찾지 못해 다시 보험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3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률은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3사의 미지급금 규모가 최근까지 약 3322억 원(삼성 1740억 원, 한화 910억 원, 교보 672억 원)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할 때 약 1300억 원이 아직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다.

3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보험금 수령자의 주소가 확인되면 '유선→안내장 우편발송' 방법 등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수령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판매된 상품에서 촉발됐다. 판매 시기가 20년 가까이 흐른 만큼 당사자 정보 확인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속관계, 행방불명,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수령자를 찾지 못한다면 대형 3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법원을 통해 공탁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자살보험금 문제를 겪은 중·소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일부는 수령자를 찾지 못한 보험금을 공탁으로 마무리지었다. ING·동부·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DGB생명이 일부 건을 공탁으로 처리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탁은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서,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으로 신청하면 채무를 모두 갚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취인이 불명확한 보험금을 안고 있는 것보다 법원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인 셈이다. 주목할 점은 보험사가 법원에 공탁을 신청한 후, 일정 기한에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공탁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탁법 제9조 3항에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韓·中관계 개선 기미…중국인 관광객 다시 몰려올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중국 특사단이 베이징으로 출국한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관광을 중단했던 중국 여행사들이 속속 국내 여행사와 접촉하고 있다. 18일 서울 명동 거리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公기업 정규직 전환, 경영평가 가점 확대 추진

올 세부평가 7개 중 1개 불과
사실상 제대로 인정 못받은 셈
내년부터 가점 강화 방안 검토
일자리 창출 노력 지표 추가도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점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내년부터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332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인력은 3만6000여 명, 간접고용 인력은 8만2000여 명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만들어 배포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현재 경영평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경영관리 범주 안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세부 평가내용 7개 중 1개에 불과하다.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는 비계량평가로 총 4점이 주어진다. 구체적 지표로 판단하는 계량평가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점수는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권장 정책 지표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범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0.9~1.7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0.5~0.9점
장애인 의무 고용	0.3~0.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3~0.5점
중소기업 제품 등 우선구매	1.8~3.6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0.3~0.5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0.6점
재정 조기집행 이행실적	0.3~0.5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0.2~0.4점
합계	6점

반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9가지의 경우 정부 권장 정책이라고 해서 세부평가항목별로 0.2~3.6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6점까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사실상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전 정부 임기 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만4000명에 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단독 지표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인건비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한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체 직원들의 임금동결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8일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려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 인건비·기준 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을 과제에 포함했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현재 거의 다 끝났고, 내달 20일께 발표를 앞두고 있어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에 개편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가맹·대리점 문제 우선 해결"

긴장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 아닌 대립구조로만 몰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유통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복합몰 출점 규제, 영업시간 단축 등의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가맹·대리점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 내정자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고 정확한 팩트 파인딩(사실확인)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자영업자의 무덤'으로까지 몰아붙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피자 브랜드 가맹점 사장이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내정자의 발언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에 가맹본부·가맹점 간 갑을 논란이 사라지고 '상생'이 자리 잡기를 희망하면서도 프랜차이즈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립구도로만 몰아가는 데 대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 갑을 논란 등으로 편의점업계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 않다"면서도 "다만 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 성장 노력이 미흡한 업종은 김 내정자의 발언과 앞으로 이뤄질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투데이 11기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고대영 김벼리 류정훈 박미선 안경무 이민호 이신철 이주혜
조보경 홍주환 이상 10명(가나다 순)

이슈 & 인물 ▶15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과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 사회 구축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에 선임된 유병규 원장이 한 말이다. 유 원장은 또 "자본재 중심의 단조로운 품목으로 미국과 중국 등 몇 개 지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업 부문 수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면서 "중국의 제조업 추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고동진 사장 ▶9



김대영 대표 ▶23



주말에 어디 갈래 ▶19
도심 속 이색도서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데이터 뉴스 Data News

시·도별 상장회사 분포 현황
(단위: 개수, 원)

지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비중	
	상장회사	시가총액	상장회사	시가총액	상장회사	시가총액	상장회사	시가총액
서울	386	758.9조	423	65.6조	809	824.6조	41.6%	49.8%
경기	136	486.8조	396	64.1조	532	550.9조	27.3%	33.3%
부산	44	10.2조	41	7.0조	85	17.2조	4.4%	1.0%
경남	39	28.5조	37	3.3조	76	31.8조	3.9%	1.9%
충남	25	12.1조	50	6.4조	75	18.6조	3.9%	1.1%

상장사 72% 수도권에 본사 배치… '서울' 쏠림 현상 심각

국내 상장회사 10곳 중 7곳 이상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으로 부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 소외 우려를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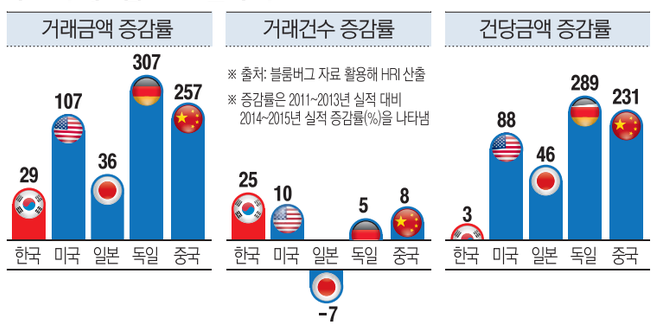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으로 상장회사 1947곳 중 72.3%인 1408곳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다. 서울이 809곳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경기는 532곳으로 27.3%, 인천이 67곳으로 3.4%였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76곳), 충남(75곳), 충북(57곳), 대구(54곳), 경북(49곳), 대전(4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사 위치가 아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 커진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142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1655조8763억 원)의 85.7%를 차지했다. 서울 내 상장사 809곳의 시가총액은 총 824조6193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경기가 550조9889억 원으로 33.3%, 인천은 44조2798억 원으로 2.7%였다.

반면, 지방인 광주광역시는 상장회사 수 비중은 0.9%지만, 시총 비중은 0.2%에 그쳤다. 전북도 상장회사 수 비중은 1.0%지만, 시총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주요국 제조업 M&A 실적 비교 (단위: %)



현대경제硏 "한국 제조업 M&A, 규모 작고 국내 치중"

한국 제조업체들은 인수·합병(M&A) 규모가 작고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국경 간 M&A에도 소극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제조업 M&A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M&A 거래금액은 직전 3개년간 거래금액에 비해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계 평균인 115%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일(307%)과 중국(257%), 미국(107%) 등 주요국과의 격차도 컸다. 건당 평균 금액 증가율도 3%에 그쳐,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세계 제조업 M&A 흐름과도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제조업체의 국경 간 M&A 비중은 33.7%로 독일(96.3%)과 일본(65.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흥국에 집중돼 있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M&A는 2014~2016년 직전 3개년에 비해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M&A는 624%나 증가했다. 미국(115%), 독일(122%), 일본(37%) 등 주요 선진국들의 증가율도 한국을 크게 웃돌았다. 이정 기자 right@

미국·대만 '돈공세'…"두고 보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도시바 반도체 매각, 오늘 본입찰

최 회장 "2차 입찰 제가격 쓰겠다"
SK하이닉스, 21조+α제시 관측
폭스콘·브로드컴 유력후보 거론
'美·日연합' 참여 등 변수 많지만
박정호 사장 "깜짝뉴스 있을 것"
최종 인수전 막판 뒤집기 기대감



출국금지가 풀린 후 도시바메모리 인수전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도시바 반도체 부문 매각 2차 입찰이 19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SK하이닉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인하고 있는 도시바 반도체 부문 인수전 양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탓이다. SK하이닉스는 2차 입찰에 예정대로 참여하고, 이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도시바로부터 2차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한 실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평가한 뒤 입찰액을 정한다.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1차 입찰 때 제시했던 2조 엔(약 21조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차 입찰 이후 "지금 진행되는 도시바 입찰은 바인딩(binding,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입찰이 아니라 금액에 큰 의미가 없다"며 "바인딩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본입찰인 2차 입찰 때는 제대로 된 가격을 써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2차 입찰에는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폭스콘)과 미국의 브로드컴 등 그동안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시바와 합작관계를 유지해오던 웨스턴 디지털(WD)은 2차 입찰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WD는 도시바 메모리 매각에 대한 독점교섭권을 갖고 있다며 매각 절차 중단을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요청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 절차 역시 1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도시바의 2차 입찰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차 입찰의 또 다른 변수는 일본의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미국 투자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일본 정책투자은행 등과 함께 꾸리려던 이른바 '미일연합'이다. 현재 참여 제의를 받은 일본의 여러 대기업이 고사하면서 난항을 겪으며 최근까지도 구성 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차 입찰 참여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참여한다면 SK하이닉스의 강력한 인수 라이벌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김준호 SK하이닉스 경영지원총괄 사장, 박성하 SK수펙스추구위원회 전략지원팀장(부사장) 등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의 인수 의지가 강하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시바 경영진을 만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승계 등 상생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 인수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깜짝 놀랄 뉴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도시바 인수전에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영록 기자 syr@

"사무실 나오든가… 떠나든가…" 매출부진 IBM, 재택근무 OUT



비용절감 효과 없고 효율성 떨어져
"도시 집값 비싸" 직원들 볼멘소리

미국 IBM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재택근무제를 폐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으로 한때 주목받던 재택근무제가 철 지난 유행이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BM은 한때 직원의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업이었다. 재택근무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업무 효율성에 더해 회사 내 근무 비율을 낮춰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는 기대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은 가시화하지 않았고 2013년 야후가 재택근무제를 철회하면서 기업들은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건강보험회사인 애트너가 재택근무를 없앤 대표적인 기업이다.

IBM이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데 가세한 이유는 직원 간 협업을 이루는 게 업무 속도를 내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해서다. IBM은 올해 1분기까지 20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다.

지니 로메티 최고경영자(CEO)가 받는 연봉이 너무 많다는 주주들의 불만도 커졌다. 작년에 로메티 CEO는 단기 성과급으로만 495만 달러(약 55억8607만 원)를 받아 취임 5년 만에 보너스 지급 최고액을 기록했다.

IBM 측은 38만 명의 직원 중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IBM의 인공지능(AI)인 왓슨을 개발하는 사업부와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수천 명의 직원이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IBM은 직원들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고 회사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 사무실로 출근할지 회사를 떠날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예컨대 마케팅부 직원들은 애틀랜타,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사무실로 출근하려면 대도시 근처로 이사해야 한다.

IBM의 로리 프리드먼 대변인은 "회사 경영진은 이제 직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직원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팀워크를 발휘할 때 고객이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위해 팀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연봉을 올려 이주 비용을 마련해준다고 했음에도 대도시 집값이 비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뉴욕시 사무실로 출근을 통보받은 마케팅부의 페니 쉬릴러 직원은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직원을 찾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는 절대 뉴욕시에서 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公共임대 확대' '도시재생 뉴딜' 좋지만, 문제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진단 ⑤ 부동산

'취약계층 임대주택' 정부가 주도하고 중산층 부분은 민간에 맡겨야
도시재생 사업 해마다 10조 필요…공약에 구체적 재원 마련책 없어
전·월세 상한제, 장기적으로 임대공급 축소 우려 '부작용'도 따져봐야

역대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최근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거 취약계층(특히 청년층)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임기 내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은 숙제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연 1만 호씩 더 공급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 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 등)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육성해서 기금이나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공적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임대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공공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민간에서 중산층 위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새 정부도 뉴스테이(new stay) 이름을 바꾸더라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대상의 임대주택으로 국토부는 올해까지 사업지 15만 호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연간 8만~10만 가구 임대주택 과수요가 추정된다"며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세대별 주거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매년 4만 호)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81만 가구에 제공되는 주거급여도 지속 확대하고 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공적 지원이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등의 바우처 제도를 공급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주거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0조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이다. 5년이면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고 원도심이나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정비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 주거대책 중 가장 바람직한 공약으로 꼽았다. 현재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2000여 곳에 이르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46곳으로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포함한 주거마련 공약에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교수는 "뉴딜 공약은 아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 주도로는 효과가 없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그렇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덕례 실장도 "도시재생은 오래 걸리고 초기 자금으로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에 도시계정이 있는데 지금처럼 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지 말고 도시재생이라는 특성을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위주로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며 민간 사업자 참여와 운영권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줄이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도 주목받는 공약이다.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추진한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분위기를 잘 봐서 추진해야 한다"며 "대도시는 장기적으로 임대 가격이 폭등할 수 있고 물량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실장은 "그동안은 임차인 시각으로 얘기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을 찾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뉴욕처럼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도입돼 임대인도 손해를 안 보고 임차인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 공급 축소가 우려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신규 세입자 임차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월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그동안 임대차 정책은 임차인 시각에서만 얘기했는데 임대인도 손해 없도록 균형있게 추진을"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 · 월세 상한제 잘 못 추진하면 대도시는 임대 가격 폭등하고 물량 줄어들어 서민들이 더 고통"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에서도 '뉴스테이'는 유지 필요. 젊은층에 집중된 공적 지원, 주거 취약계층에도 혜택을"

문재인 정부 주요 주거문제 공약

1.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2.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3.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4. 영구 · 매입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5. 매년 10조 원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로 생활여건 개선
6.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흔들리는 '성과연봉제'

文대통령 "일률적 호봉제도 옳지 않다"

새 정부 "勞使합의가 가장 중요"
업무 성격·난이도 따라 급여 차등
직무급제 형태 임금제 개편도 거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일단,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사(社)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급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성과연봉제 확산은 불투명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립 좌초 위기 =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 혜택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산에 열을 올렸다. 당시 박 정부에서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시간만 지나면 성과와 관계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과 금융회사 직원들의 관행을 수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천명하는 등 고용 확대와 노사 간 화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박 정부의 공공 부문 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자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통상 전체 연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성과급 액수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에 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연봉 8000만 원을 수령하는 동기 집단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최고 수령자는 8800만 원을, 최저 수령자는 7200만 원을 받는 구조다.

◇합의된 공기업 '되돌리기 힘들어'… 폐지 사실상 불가능할 듯 = 현재까지 48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부는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2010년부터 도입돼 온 만큼 이를 일괄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71개에 달한다. 이미 수년째 성과연봉제를 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임금·성과급 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고 했을 뿐, 과거처럼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노사합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키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은 유인체계를 통해 합의를 유도, 성과연봉제의 틀 자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안철우 기자 acw@



역대 최단시간에 열린 '국회 소통門'

文대통령, 5당 원내대표 회동

의제 논의보다 상견례 자리 불구

사드·북핵·일자리… 현안 첫 거론

향후 국회관계 가늠할 자리 주목

한국당, 청문회·추경 등 공세 예고

국민의당, 文정부 방향 일단 협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을 하고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정권 중 최단 기간 내 국회와의 대화였다.

적극적인 대야(對野) 소통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 결과가 국·청 협력정치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상견례 성격이 강해 특별한 의제 없이 1시간여가량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정 과제 및 개혁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견례를 겸해 청와대와 국회가 소통의 문을 여는 차원의 자리"라며 "여기엔 기존의 긴장 관계를 탈피해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청(국회와 청와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국회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성사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북핵 문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새 정부 국정 현안이 거론되는 첫 테이블이기도 하다. 향후 국청 관계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가늠대로 주목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권에서 봐왔던 청와대와 국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기존 관계를 탈피해 소통과 협력하는 관계 설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에 우선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의 대상은 각 야당"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정부나 여당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를 반영해서 협력해 통치하겠다. 국민의당에서 제안하는 것도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와 추경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현안을 벼르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인선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의식해 "내용상으로도 협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본다"며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고,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야당 입장에서 경청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조하되 야당으로서 견제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찬 회동을 위해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께서 오찬 후식을 요리하실 것"이라며 "오찬 후 선물로 드릴 보양식도 손수 준비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오찬에 참석하지 않는 만큼 실무진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정·정용욱 기자 puri21@

대선 후 열흘… 엇갈린 여의도 정가 표정

與 '승승장구' 野 '점입가경'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 갖춰

'黨靑일체' 국정운영 적극 뒷받침

한국당, 당권 놓고 극심한 내홍

국민의당·바른정당 인물난 심각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줄 세 번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다시 탈당해 복귀한 박순자·이은재·홍일표 등 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선이 치러진 지 열흘이 지난 19일 여야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70~80%에 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열 재정비를 마치는 등 여권은 순항하고 있지만 야권은 대선 패배 후 당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 추미애 대표의 당직 인선과 원내대표 선거로 새 지도부 체제를 갖췄다. 추 대표가 측근인 김민석 전 의원을 기용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잡음도 나왔지만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으로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민주당은 '당·청 일체'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100년 정당·100일 플랜' 프로젝트를 가동해 당을 집권당 체제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의 진로와 차기 당권을 놓고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몇몇 중진의원이 당 대표의 권한이 강한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같이 선출해 권력이 분산되는 '집단지도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펴면서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적전분열 양상이 뻔히 보이는 집단지도체제를 왜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옛날 봉숭아학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전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선 "보수의 적은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 버려야 한다"는 등 극한 발언을 쏟아내며 당의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날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지도부 체제를 바꾸려는 친박을 SNS상에서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맹비난했고, 친박 홍문종 의원은 간담회에서 홍 전 후보를 향해 "제정신인가, 낮술 드셨나"라고 비판하는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한국당의 행태는 지리멸렬, 점입가경"이라며 "난타전, 진흙탕 싸움은 앞으로 갈수록 더해져 국민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아직 지도부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를 세운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뒤 8월께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기로 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바른정당은 6월에 전대를 연다. 다만 두 당 모두 인물난을 겪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文캠프 일자리위원장 유웅환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산업 융·복합으로 공공인력 양성"

'사람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책 출간 앞서 초고본 단독 공개

"스마트 고속도로 운송·유통 등 산업 전반에 영향 미칠 것" 강조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는 이달 중 '사람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새 책을 내놓는다. 유 수석매니저는 책 출간에 앞서 19일 이투데이에 완성된 초고본을 단독 공개했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 △1장 우리가 맞이할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사람 중심 세상의 기회로 △2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미래, 기업문화·일자리 이노베이션 △3장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사람이 꿈꾸는 기술과 문화의 동반 상생을 향하여 등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3장이다.

유 수석매니저는 3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더문캠'에서 고민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을 소개했다.

특히 인공지능·사물인터넷·5G 네트워크·정보통신기술·스마트카·스마트고속도로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서에서 "인공지능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이 융·복합해 제조업 혁신을 이끌고 공공 인력을 양성하며 나아가 빅데이터를 개방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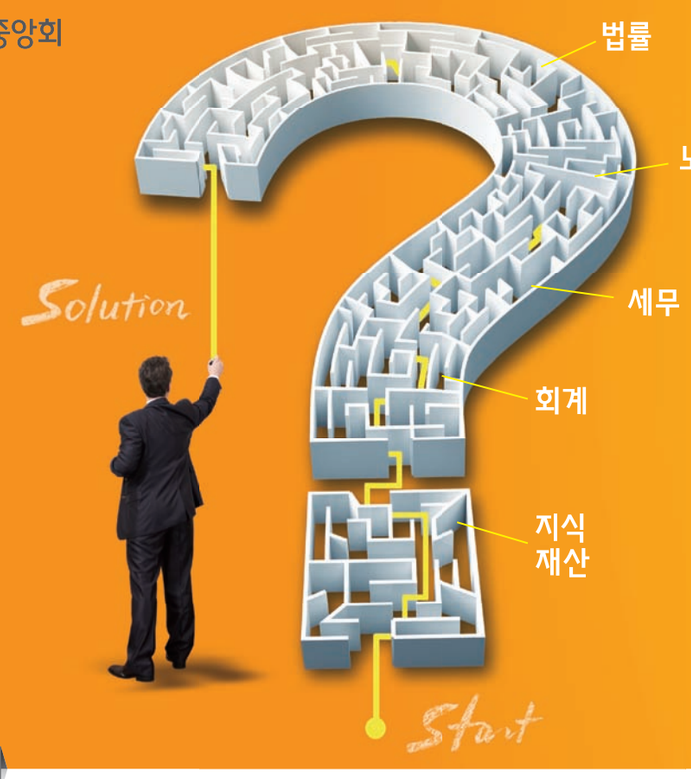
유 수석매니저는 특히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 등을 바탕으로 무인 화물차 등이 운송·유통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순차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능형 교통 체계를 이용한 단거리 전용 통신(DSRC,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과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등 상호 차량 간 위험 순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차량 통신을 구축한 뒤 고정밀지도를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물인터넷과 연계돼 있다.

그는 "사물인터넷이 이러한 (자율주행차 등) 기술들을 떠받칠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 속도와 파급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핵심 기술력은 일본에 밀리고, 시장 규모에선 중국을 따라잡기 버거운 상황인 데다 로봇 관련 스타트업도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를 형성하고 제도 규제 개혁을 동반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사장님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구요?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시다구요?
지금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법률 ☑회계 ☑세무 ☑노무 ☑지식재산

상담 받으시는 방법!

방문·유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666-9976)를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대 상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상 담 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상담시간 14:00~17:00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접속하시면 "사이버종합상담실"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특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단, 상담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연 1회에 한함.

지원 분야!

☑법률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노무
채용, 해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세무
기장대행(회계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 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회계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 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등

☑지식재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 재산권 가치평가 등

무료상담 1666-9976 / www.kbiz.or.kr

무디스 "한전 셧다운, 신용에 부정적"

'노후 석탄화력발전 중지' 영업현금흐름 악영향 전망
정부 정책에 한전 주가 하락시 주주 집단소송 우려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이 한국전력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5일 한전 자회사가 운영 중인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이른바 '셧다운(shutdown)'을 지시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정기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전력생산 규모는 올해 예상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8.5%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디스는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로 석탄화력발전이 축소되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영업현금흐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봄철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kW당 73원 정도이고, LNG 가스는 100원 정도다. 화력발전을 가스로 대체할 경우, 비용 인상이 불가피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력 비수기인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셧다운 석탄화력발전소가 노후 발전소에만 한정된 만큼 요금인상 요인은 0.2%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지시에는 2022년까지인 현 정부 임기 안에 10기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노후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부족한 전력량을 LNG 발전이 모두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6월 한 달 정지 시엔 한국전력은 1798억 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개 분기로 보면 5393억 원의 비용이 늘고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12조 원의 4.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발전원가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 조치로 한전의 연간 영업현금흐름이 올해는 600억~7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3000억~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각각 추산했다.

다만 무디스는 "유가 전망치인 올해 배럴당 45달러, 내년 배럴당 50달러를 토대로 고려하면 한전이 계속해서 적정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설비투자와 기타 투자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향후 1~2년간 한전의 신용지표가 소폭 약화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해외직접투자액 107억 달러 '신기록'

'삼성, 하만 인수 효과' 1분기 30.2%↑…도소매 1095%·방송통신 473% 급증

올해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기업의 활발한 해외업체 인수·합병(M&A)이 영향을 끼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은 107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2억3000만 달러) 대비 30.2% 증가한 규모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의 전장기업인 하만을 80억 달러(약 9조376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업체 M&A 사상 최대 규모다.

넷마블게임즈는 미국 모바일게임사 카밤의 밴쿠버스튜디오를 8억 달러(약 9548억 원)에 인수하면서 해외 송금액을 불렸다. 이에 1분기 신규법인 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는 28.7% 감소한 반면, 기존 법인 지분 인수 등 M&A형 투자는 137.0%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1094.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72.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2.7%)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31.6%), 금융 및 보험업(-45.5%), 부동산업 및 임대업(-75.1%) 투자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126.1%) 지역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그 외 지역 투자는 줄었다. 아시아(-8.8%) 지역의 투자 하락은 제조업 투자 감소(-21.1%), 중남미(-45.9%) 지역의 투자 하락은 금융·보험업 투자 감소(-63.8%)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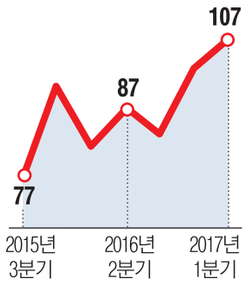
최대 투자대상국인 미국(142.8%)으로의 도매 및 소매업(4470.6%)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76.9%)에 대한 투자 증가는 1분기 전체 해외직접 투자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중국(-18.6%)은 제조업(-39.8%), 케이만군도(-57.3%)는 금융·보험업(-64.0%) 투자 감소로 투자액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LG전자와 현대차의 대미 투자 확대 계획, 기아차의 인도 완성차공장 건설 계획 등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해외직접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지역별 송금액	송금액(증감률)
북 미	69 (126.1)
아시아	21 (-8.8)
중남미	7 (-45.9)
유 럽	6 (-12.9)
대양주	2 (-27.6)
중 동	1 (-76.8)
아프리카	0 (-91.6)
합 계	107 (30.2)

분기별 송금액





코레일은 17일 부산 강서구 신항만역에서 총길이 1.2㎞(80량)에 이르는 국내 최장 화물열차가 시험운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시험운행에 성공하는 모습. 연합뉴스

총길이 1.2㎞…국내 최장 '80량 화물열차' 운행 성공

분산중련 무선제어 시스템…수송량 2.4배↑

기관차 2대를 화물열차 앞뒤에 나눠 연결(분산중련)해 앞 기관차가 뒤의 기관차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분산중련 무선제어 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도입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화물열차를 최대 80량까지 연결할 수 있어 수송량이 2.4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총길이 1.2㎞(80량)에 이르는 국내 최장 화물열차가 부산신항역~진례역 구간 시험운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1개 열차에 최고 33량을 연결해 수송했다.

40량 이상의 장대 화물열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관차 2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두 대를 연속으로 연결해 화차 80량을 견인할 경우 긴 열차 길이 때문에 제동을 위한 공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동이 차례로 지연돼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은 올해 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분산중련 무선제어를 위한 전송정보와 차량제어 시스템 로직 설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무선제어기 및 중계기 설계와 설치, 코레일은 분산중련 무선제어를 위한 차량기술 정보제공과 시험 운전 업무를 맡기로 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는 열차운행을 최적화해 일부 열차에 40량을 연결해 수송했고, 4월에는 유선케이블에 의한 분산 중련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50량 수송에 성공한 데 이어 불과 1개월 만에 무선제어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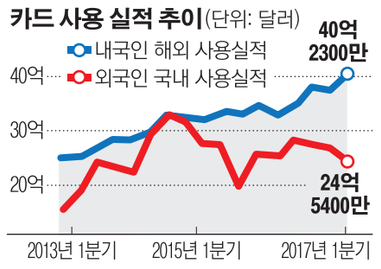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 물류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수송 효율을 높이고 물류 분야에서 철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용량 수송의 장점을 살려 국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해외 카드사용액 '사상 최대'

〈1분기 기준〉

1분기 40억 달러 첫 돌파 7.4% 늘어
외국인 국내 사용액은 24.5억 달러
사드보복에 메르스 사태 이후 최저

카드 사용 실적 추이 (단위: 달러)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사용한 카드값이 올 1분기(1~3월) 중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탓에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실적은 25억 달러를 밑돌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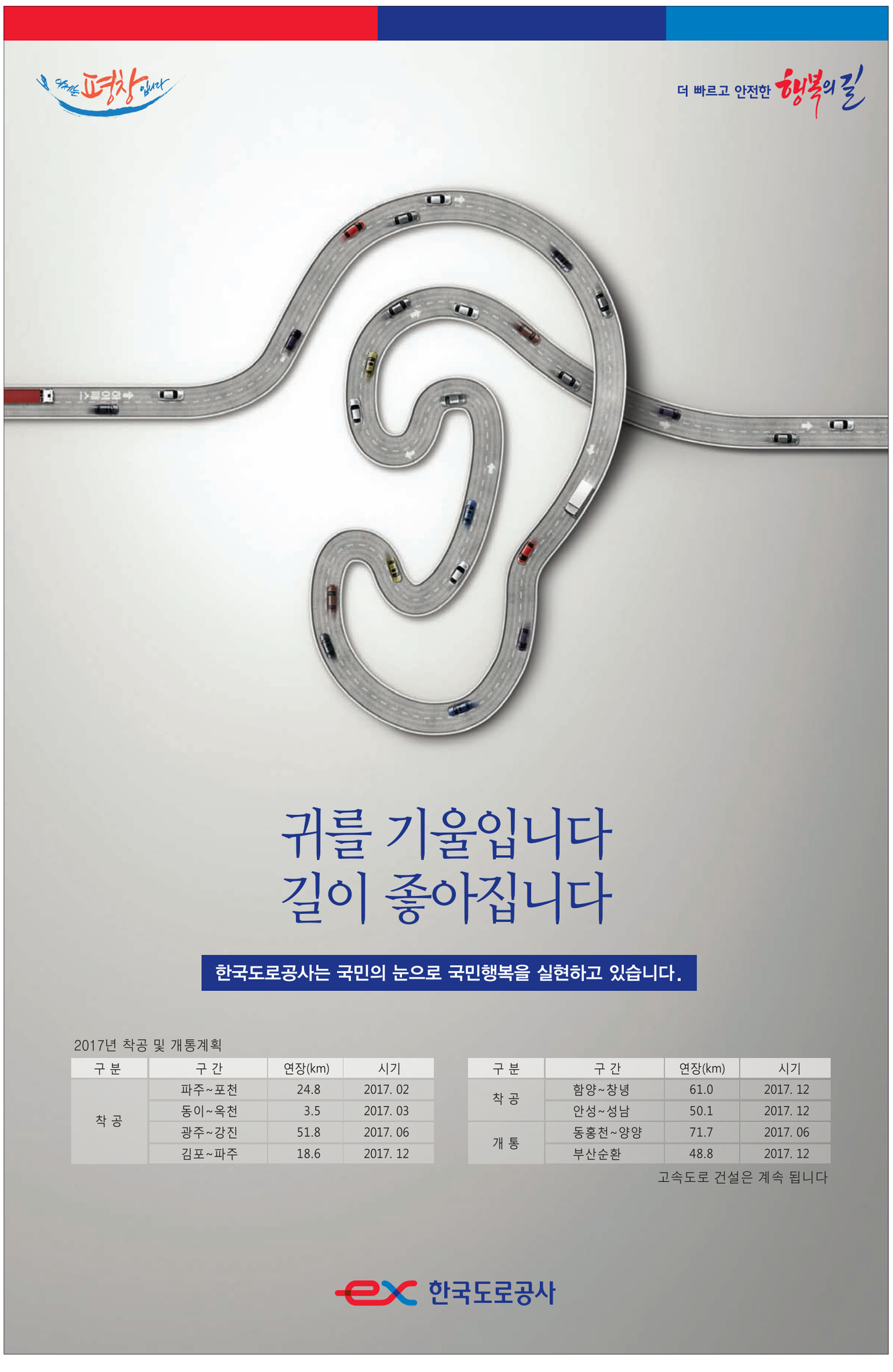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전 분기 대비 7.4% 증가한 40억2300만 달러(4조6369억 원)에 달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7년 1분기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신용카드가 29억700만 달러(3조3506억 원)로 전체 카드사용액의 72.3%를 차지했다. 설연휴 등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전 분기보다 14.3% 증가한 651만 명을 기록했다.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반면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와 사용한 카드값은 24억5400만 달러(2조8285억 원)에 그쳤다.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한 2015년 3분기(20억3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다. 중국 당국의 단체여행 금지 등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분기 중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전 분기 대비 1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전체 입국자 수는 전 분기보다 12.6% 줄었다는 점에서 유커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영 한은 자본이동분석팀 차장은 "메르스 사태 후 1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3분기 회복되나 싶었지만 사드 보복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돈없어 그냥 마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1000~3000원·공기청정기 최저 20만원대
환경문제 대응도 '빈익빈 부익부' …"정부가 지원 나서야"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일한 방지책인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노약자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악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쳐도 돈이 없는 취약계층은 마스크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는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약계층의 노약자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요령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에는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추울 때 쓰는 방한용 마스크와 달리 특수 필터가 내장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효과적이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Korea Filter)' 표기가 있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일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는 개당 1000~3000원 수준이다. 재사용하거나 빨아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1000원짜리 마스크의 경우 한 달에 3만 원, 4인 가구 기준 12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34만 원임을 감안할 때 9%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개당 20~50원인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증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내는 반면, 일반 마스크는 미세 먼지 차단 효과가 없다.

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가정집에 많이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꿈도 꾸지 못한다. 공기청정기는 가장 싼 가격대가 20만 원이고, 비싼 제품은 수백만 원을 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나선 곳도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2481곳 중 2062곳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해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마스크·공기청정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잘사는 집은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가난한 집은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어 미세먼지 대처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취약계층 노약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10년간 8.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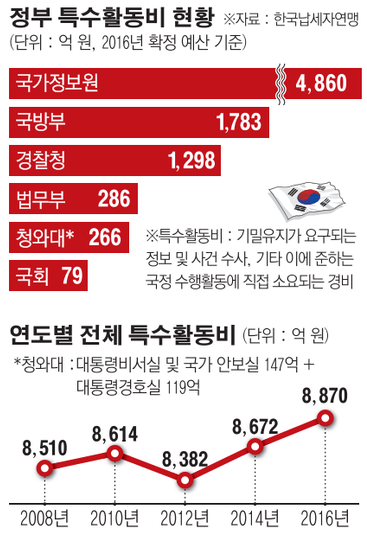
국정원 4.7조로 최다…국방부·경찰청·법무부 뒤이어

'돈봉투 만찬'으로 불거진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최근 10년간 8조5000억 원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 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 원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연맹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5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국가정보원(4조7642억 원)이었고, 국방부(1조6512억 원), 경찰청(1조2551억 원), 법무부(2662억 원), 청와대(251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역시 국가정보원(4860억 원), 국방부(1783억 원), 경찰청(1298억 원), 법무부(28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연맹은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맹은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서울로 7017' 내일 개장

휴일 이틀간 다양한 행사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도심 속 공중정원 '서울로 7017'이 20일 정식 개장한다. 개장일이 낀 이번 주말 서울시는 이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모은다.

'서울로 7017'은 이날 10시를 기해 전면 개방되며, 오후 8시 공식 개장식을 갖는다. 이날은 '서울로 7017' 곳곳에서 국악, 인디밴드 등의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가 마련한 11개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서울로 7017'의 거점인 장미마당, 목련마당, 만리동광장, 대우빌딩 연결로 등에서는 개장식이 열리는 오후 8시까지 색소폰·플룻·오카리나·오케스트라 등 음악연주, 마임공연, 패션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개장식에는 서울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회로 '서울로 7017 시민합창단'이 수개월 동안 갈고 닦은 공연을 선보인다.

개장 다음날인 21일에도 9개의 다채로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전 8시 30분에서 낮 12시까지는 '거북이 마라톤'이 실시된다. 만리동광장에서는 오후 1~4시 시민이 경연하는 서울드럼페스티벌 '더 드러머'를, 오후 6~8시 서울시 예술단 특별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서울로 7017 개장식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보행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 공중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은 서울역고가가 개통된 1970년과 새 길이 나는 2017년을 상징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김영재 집유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재(57)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관련자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사업에 필요하고 도움 되는 여러 기회와 혜택, 이른바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가기 어려웠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가 현지 유력 인사 등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지시로 움직이는 안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피케팅 노조원 징계는 부당"

법원, 발레오전장 노조원 정직 처분 부당노동행위 판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회사 앞에서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송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가 유인물을 건네거나 피케팅한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케팅의 주된 내용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는 판결이 선고됐으니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진실"이라며 "설령 '똥고집', '억압과 착취'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케팅 목적이 회사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인물 내용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징계가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장폐쇄에 돌입할 무렵부터 발레오만도를 무력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 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했다"며 "발레오만도를 유지하는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송 씨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계를 내렸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산하 발레오만도 조합원인 송 씨는 1996년부터 발레오전장에서 일했다. 회사는 2012년 11월 송 씨가 회사 공장 정문에서 피케팅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한화생명

당신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인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화생명 FP의 가장 큰 꿈은
당신의 삶을 아름답고 다채롭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신상훈 25억 스톡옵션 받는다… 신한 사태 마무리

〈신한금융 前 사장〉

이백순 전 행장도 스톡옵션 보류 해제

"새 경영진 짐 덜어주자" 이사회서 의결



지난 7년간 이어온 '신한 사태'의 마지막 매듭이 풀렸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사진〉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까지 부여받은 약 23만76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 중 2005~2007년에 신 전 사장이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했다. 법정 공방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당시 받은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은 이날 신한금융 종가 4만8700원 기준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이 2005~2008년에 받은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권한을 인정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는 검찰에 기소된 신 전 사장 등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3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일부도 신 전 사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신 전 사장이 지난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명예회복에 성공하자 관심은 자연스레 스톡옵션에 쏠렸다.

비슷한 시기에 신한금융은 한동우 전 회장 이후 6년 만에 새 사령탑을 꾸렸다. 이를 계기로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조용병 체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한 사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권에는 신한금융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신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문제는 이날 정기 이사회의 정식 안건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들의 격론 끝에 박철 이사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묵은 앙금을 빨리 털고 가자는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새로운 경영진에 짐을 덜어주려는 이사회의 결단이 읽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견해를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효진 기자 js62@

KB국민은행, 전화로 만기예금 재예치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 만기가 지난 예금을 간편하게 재예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예금은 '국민수퍼정기예금' 상품으로 해당 계좌 관리점 직원이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통화 후 간단한 본인 확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재예치가 완료된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국민연금도 파격 인사? 民間출신 이사장 거론

복지부 장관 임명되면 인사 시작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 핵심 공약

독립적인 성향의 민간출신 관측

복지전문가·교수 2~3명 후보군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제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석인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 이사장은 독립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의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대학 교수인 복지 및 지배구조 전문가 2~3명이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의원 보좌관은 "국민연금의 개혁은 경제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이러한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560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 이사장 인선은 빨라야 6월 말 7월께 이뤄진다. 이를 고려하면 현 기금운용본부장을 임기 만료 전에 무리하게 교체하기보다는 내년 2월에 새 인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 기금운용본부장은 공고를 통해 선임하는데 이 과정이 두어달 소요된다. 새 기금운용본부장은 시장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원칙 아래 현 정부의 인맥을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완선 전 본부장, 강면욱 현 본부장 모두 정권 실세와의 인맥 때문에 해당 자리에 선임됐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을 위한 2017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사업

여성사 강사양성 및 서울여성 역사지도 만들기

살아 움직이는 역사공간 서울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다

서울의 유적과 유물들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작업!
역동적인 여성사박물관의 초석을 놓는 출발점!

교육기간 2017년 5월 23일(화) - 9월 19일(화) (주 2회, 총 23회)
교육시간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대상 여성사박물관건립과 여성사 강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참 가 비 무료(교육비 1인 70만원 전액 지원) * 답사시 입장료와 식비는 개인부담
교육장소 이투데이 5층 교육센터 (1호선 대방역 6번 출구)
신청방법 네이버 카페 (사)역사여성미래 http://cafe.naver.com/historywomenfuture.cafe

서류접수기간 4월 25일(화) - 5월 19일(금) 오후 9시
선발조건 역사학, 여성학 전공자, 해설경험자 우대 (80% 이상 출석 시 수료증교부)
심사결과발표 최종 선발자 5월 20일(토)오후 6시 인터넷 게시판 공지
교육 후 특전 교육수료자는 IAWM in Asia 팝업박물관 행사 참여 및 찾아가는 학교 강사 파견시 우선권 부여
참가문의 수신메일 nwhm2013@naver.com 연락처 02-799-6754

회차	날짜	강의명	강의내용	강사명
1	5.23	개강식	여성사 강사 양성과정의 의미	정현백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조형예술에 나타난 여성상	역사의 흐름 속 여성예술, 여성예술가	이원복 (부산박물관)
2	5.25	고대신화 속의 여성	신화화된 고대여성, 웅녀, 유화, 알영 이야기	김선주 (중앙대)
3	5.30	관련유적지 답사	강동 : 아차산성	김도경 (여성문화유산 해설사)
4	6.1	삼국을 빛낸 여성들의 꿈	소서노와 도미부인, 아차산성과 평강공주	이현주(성균관대)
5	6.8	고려의 왕실여성과 권력	천추태후, 기황후 및 비구니가 된 왕실여성들	권순형(한국학중앙연구원)
6	6.13	관련유적지 답사	종로 : 정업원구기비와 보문사, 낙산일대	최선경(보물찾기여행)
7	6.15	다시 보는 신사임당	신사임당의 삶과 예술세계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8	6.20	조선의 여성 문장가	서울에 살았던 여성실학자 이빙허각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9	6.22	하층민 여성의 혼인과 삶	여성노비의 일상생활, 노동 그리고 꿈	이성임(서울대)
10	6.27	조선 왕실여성의 종교생활	왕실여성의 불교신앙생활 및 궁궐 안 비구니사찰	탁효정(한국학중앙연구원)
11	6.29	관련유적지 답사	은평 : 이말산 궁녀묘역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이정향(허스토리마실)
12	7.4	조선 왕비들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	정치력을 행사한 조선의 왕비들	한희숙(숙명여대)
13	7.6	관련유적지 답사	종로 : 서촌일대 창의궁, 선희궁, 자수궁터 등	김도경(여성문화유산 해설사)
14	7.11	사회변화를 이끈 여성들	천주교를 받아들인 여성들과 여성신앙공동체	김정숙(영남대)
15	7.13	지역조사 워크숍	서울의 여성유적지 현황과 조사방법, 그룹워킹	최선경(보물찾기여행)
	7.14-8.23	모둠별 지역조사	8개 모둠에 대한 멘토링과 모둠별 지역조사	멘토링 2회
16	8.24	일제강점기 여성독립운동가	유관순과 여성 의병들의 도전, 고난, 역사적 의미	신영숙(이화여대)
17	8.29	굴레를 벗어 던진 신여성들	근대교육과 신여성의 등장	한동민(수원화성박물관)
18	8.31	관련유적지 답사	중구 : 정동교회, 이화학당, 서소문순교성지등	최선경(보물찾기여행)
19	9.5	군위안부,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박정애(숙명여대)
20	9.7	한국전쟁 속 여성들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여성들의 역할	김은경(숙명여대)
21	9.12	가족법개정과 여성들	한국의 가족법, 노동법 등 법개정 운동의 역사	홍양희(한양대)
22	9.14	관련유적지 답사	마포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여성단체 방문	송미란(여성문화유산 해설사)
23	9.19	조사발표 및 평가, 수료식	지역조사결과 발표 및 평가 수료식	기계형(역사여성미래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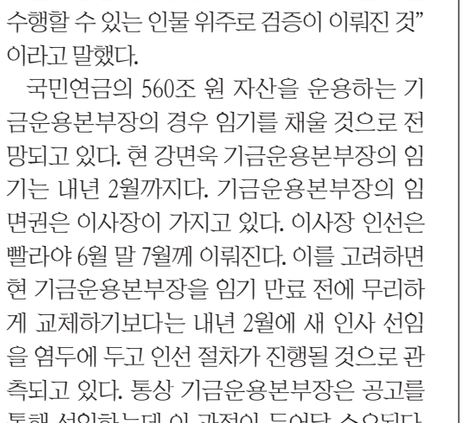
* 강사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역사·여성·미래 CEWHM KOREA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서울특별시 이투데이 프리미엄 경제신문

을지로로 본점 옮기는 하나銀… 소재지는 명동?

7월 신사옥 이주에도 본사 소재지 명동 유지

옛 외환銀 본점 매각 완료되면 주소 바꿀 듯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투시도.

KEB하나은행이 오는 7월 새로 지은 서울 을지로 신사옥으로 본점 사무실을 이주하지만, 당분간 본사 소재지를 명동 주소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9일 "다음 달 옛 하나은행 을지로사옥에 대한 재건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은행장실 등 임원실을 시작으로 현재의 옛 외환은행 명동본점에서 을지로사옥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본점 소재지 등기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합병은행의 본점은 인수한 은행의 본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6년 통합 신한은행은 옛 조흥은행을 토대로 합병했지만 통합법인 본점은 조흥은행 본점이 아닌 신한은행 본점으로 했다. 하지만 현재 KEB하나은행 본점 소재지는 서울 명동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이다. 옛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옛 하나은행이 합병됐기 때문에 통합법인 본점도 옛 외환은행 본점을 그대로 이어갔다.

리모델링 중인 을지로 신사옥이 완공되면 7월 22일부터 9월 말까지 흩어져 있는 은행 부서들이 순차적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옛 하나은행 본점으로, 외환은행 본점과 그랑서울 등에 산재해 있는 은행과 지주사를 한데 모은 통합사옥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은 2015년 통합법인 출범 전까지 옛 하나은행 본점 소재지였다.

본점 기능이 이전됨에도 주소를 놔두는 데는 하나은행이 본사인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삼정KPMG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해 이달 중에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명동본점 건물 매각이 완료되면 그때 본점 소재지 상업등기를 변경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가격 부담 던 삼부토건·경남기업 이번엔 팔릴까

잇단 자산 매각…각각 7곳·4곳서 인수의향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과 경남기업 인수전에 총 11개 업체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기업 모두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인수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일PwC 주관으로 실시된 삼부토건과 경남기업 예비입찰에 각각 7개, 4개 업체가 참여했다. 두 기업을 비롯해 STX건설까지 이달 중 LOI를 받으면서 건설사 매물이 겹쳤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삼부토건에는 매각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인수의지를 밝혔던 신일유토빌건설이 중국 광채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LOI를 제출했다. 삼부토건은 앞서 두 차례 매각에 실패한 전력이 있지만 최근 강도 높은 자산 매각으로 체급이 가벼워지면서 인기 매물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만 벨레상스호텔(옛 르네상스호텔), 삼부오피스빌딩, 골프장 타니CC, 대전 삼부스포렉스빌딩, 삼부건설공업 등을 매각해 채권변제를 마무리했다. 작년 연결기준 순이익도 2614억 원을 기록해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경남기업 역시 지난해 연결기준 36억 원 영업이익을 내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자회사 수완에너지도 매각해 인수가격 부담을 던 만큼 올해 매각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매각 성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장사인 삼부토건은 주가가 크게 뛰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올 초부터 3월까지 한 주당 5000원선에서 거래됐지만 지난달 매각 공고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전날인 18일 종가는 1만9650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기존 거래량도 10만~20만 주 수준이었지만 4월부터 평균 200만~500만 주가 거래되고 있다. 이에 삼부토건 노조는 회사 회생절차를 맡은 서울회생법원에 종목 투기세력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다운 기자 gamja@

‘슈퍼호황’ 화학사 회사채 발행 줄 잇는다

LG화학, 최근 역대 최대 규모 회사채 발행
한화케미칼·롯데정밀화학도 500억 규모 예정
적극적인 자금조달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방침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잇따라 회사채 발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석유화학사들이 줄을 이을 정도로 화학업계의 수익성이 월등히 개선되자 회사채 발행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석유화학사들은 이를 기회로 활용, 적극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던 LG화학에 이어 한화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이 연이어 회사채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한화케미칼이 24일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조달 계획은 500억 원이지만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고 관련 업계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올해 초에도 당초 계획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롯데정밀화학도 다음 달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롯데그룹 편입이 이후 처음으로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처럼 석유화학사들이 잇따라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석유화학사들의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화학사들은 지난 2년간 유가 하락과 수급 환경 개선으로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으며 호실적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LG화학은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최근 탄탄한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화케미칼도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7.6% 증가한 1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높아진 실적 안정성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금리 역시 회사채 발행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확정, 회사채 발행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 및 유동성 선확보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12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했던 LG화학의 경우 수요예측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금리가 개별민평금리 대비 0.02% ~ 0.05% 낮은 수준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들 화학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정밀화학은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롯데정밀화학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간 9000톤의 헤셀로스(HEC)를 생산하는 공장 증설을 결정, 45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 종료 시점은 2018년 9월 30일이다.

LG화학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외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우수한 금리로 확보한 자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구조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메이커스페이스에서 열린 전문메이커 양성과정 교육에서 김명원 매니저가 CNC라우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창업아이디어가 현실로 ‘뚝딱’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IoT 창업자 대상 ‘전문 메이커 양성과정’
대형 디지털장비 등 50여종 보유… 시제품 직접 설계하고 제작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나무, 금속, 아크릴,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사업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제품 제작 교육이 마련됐다.

성수 메이커스페이스는 IT 창업을 위한 ‘전문 메이커 양성과정’을 열고 3D프린터, CNC라우터, 레이저커터 등 기초장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진행된 교육(CNC라우터)에는 예비창업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성수IT종합센터에 위치한 성수 메이커스페이스는 소규모 창업문화를 만드는 사물인터넷(IoT) 1인 제작 놀이터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대형 디지털 장비를 비롯해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약 50여 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교육은 IoT를 활용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대형 디지털 장비 교육으로, 교육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들은 대형 장비의 사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실제로 장비를 다뤄 보고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도면을 그리고 파일을 저장해 기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소재를 깎아 원하는 제품이 나오는 방식이다. 예비창업자들은 시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메모하고 촬영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아이디어 제품을 활용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송다영 씨는 “시제품을 일반 대행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공정들을 한곳에 모아 직접 설계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창의적 메이커 인재 육성과 아이디어 현실화를 통해 IoT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메이커 양성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오픈 플랫폼 교육,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교육 등 크게 3단계다. 현재는 중급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7월 고급과정 모집 공고에 이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한 김명호 서울산업진흥원 매니저는 “일반인들도 소프트웨어를 조금만 배우면 시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예비창업자들이 소규모 제조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중국 베이징 외곽 구베이슈에이전에서 열린 제품 발표회에서 ‘갤럭시S8’·‘갤럭시S8+’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의선 미래車 시동

이스라엘 ‘모빌아이’ 경영진 만나 자율주행차 협업 논의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기술 선점을 위해 글로벌 핵심 기술 업체와 연쇄 회동을 가졌다.

자율주행·사물인터넷 등 ICT기술과의 융합으로 자동차가 과거 단순 이동수단에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8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14일 터키로 출국해 터키 공장과 현지 시장을 둘러봤다. 이후 이스라엘로 이동해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아이 고위 임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빌아이와 미래차에 들어갈 차세대 칩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빌아이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평가받은 업체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인 회사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는 차량용 카메라와 센서 등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가 올해 1월 ‘2017 CES(소비자가전전시회)’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심 주행을 선보인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에도 모빌아이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모빌아이는 현대차뿐 아니라 GM, 닛산, BMW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모빌아이와의 만남을 비롯해 자율주행 부품사,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 부회장은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석을 시작으로 스위스·베트남·스페인·러시아·중국 등 현지 시장을 직접 점검하며 연일 해외시장에서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다.

이정 기자 right@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中대륙 공략

‘갤럭시S8’ 제품발표회 직접 소개… “반드시 점유율 회복”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갤럭시S8’을 앞세워 스마트폰 최대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근 구베이슈에이전에서 ‘갤럭시S8’·‘갤럭시S8+’ 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지 파트너·미디어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리장성 중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쓰마타이 창청을 배경으로 만든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동진 사장은 “1992년 중국 진출 이후 25년 동안 중국은 삼성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었다”며 “갤럭시S8 시리즈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최고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은 7위권에 불과하다. 고동진 사장이 최근 “중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준비해 반드시 점유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특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기지 9곳을 운영하고 7개 R&D센터, 디자인센터에 4000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두고 있다. 이번 갤럭시S8 시리즈 출시와 함께 중국의 대표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Bixby)’의 경우, 중국 유력 온라인 서비스업체들과 연계해 장소·이미지·와인 검색이나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중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인 텐센트의 신작 모바일 게임 ‘천룡팔부’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런처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LG 스마트폰 연구소 군살빼기

올 초 6곳서 4곳으로 규모 축소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MC사업본부 지난해 1조 적자
조직 축소 등 실적 개선 안간힘

LG전자가 적자를 지속하며 지난해 인력 재배치를 진행한 스마트폰 사업에서 또 한번 군살빼기 작업을 실시했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GSM단말연구소 △단말연구소 △차세대단말연구소 △CDMA단말연구소 △단말기술연구소 △PC연구소 등 6개로 운영되던 스마트폰 관련 연구소를 올해 초 차세대단말연구소와 단말기술연구소를 빼고 4개로 축소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 후 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4개의 공간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인력 규모는 지난해 말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지난해 연간 1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주력 제품의 흥행 실패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인력 재배치, 조직 축소 등을 펼치고 고정비를 줄이며 실적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PMO’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MC사업본부의 수시 조직개편을 전격 실행했다. 업계에서는 당시 조직개편과 함께 1000여 명의 인력 재배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LG전자는 주력 수익모델 위주로 제품라인을 축소해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며 MC사업본부 인력을 상당수 타 사업부로 재배치했다.

조직 효율화 작업 및 원가 절감 효과에 따라 올 1분기 MC사업본부의 적자 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2022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적자폭이 2억 원에 불과해 올해 스마트폰 사업의 이른 흑자전환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업계는 LG전자 MC부문이 올해 구조조정 성과로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경우 소니 스마트폰 사업보다 구조조정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형우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일본 소니도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를 대폭 축소하며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며 “LG전자도 ‘G6’로 MC사업본부의 적자를 줄인다면 가장 큰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文정부 미세먼지와의 전쟁… 공기청정기 업체들 ‘방긋’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양로원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이 모인 곳에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이 이뤄지면 약 100만 대에 이르는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50% 성장한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수로 따지면 150만 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 시 6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외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가 TV, 세탁기 등처럼 필수 가전이라는 인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과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가전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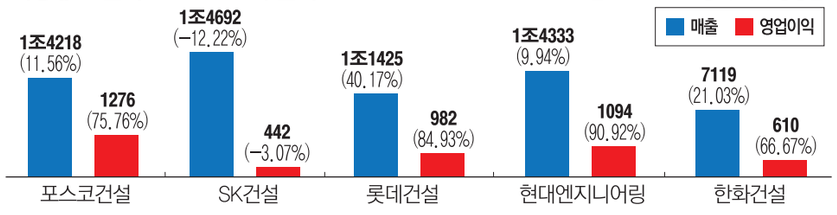
한편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공기청정기 생산, 판매 업체들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의 판매 돌풍에 힘입어 4월 광주에 위치한 공기청정기 생산라인을 주말 없이 풀가동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가전공장에서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를 생산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非상장 대형건설사, 1분기 '주택' 덕에 웃었다

해외 부실 정리… 주택사업 선방
포스코건설 영업익 1276억 76%↑
현대ENG 91%·롯데 85% 증가

비상장 건설사 2017년 1분기 실적 단위: 억원 ※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대형 비(非)상장건설사들이 올해 1분기 해외 사업의 부실이 정리되고, 주택사업이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실적도 선방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평순위 10위권 내 대형비상장 건설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대부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1분기 12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726억 원을 달성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75.7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 1분기 1조2745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218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1년 동안 180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실적 개선은 브라질 CSP 제철소 손실분이 정리되고, 부산 해운대 엘시티 프로젝트의 본궤도 진입과 함께 그 동안의 구조조정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 상승세도 거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1분기 1094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2%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도 1조4333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주택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롯데건설도 실적이 크게 성장했다. 1분기 매출액은 1조1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7% 늘었고, 영업이익은 982억 원으로 84.93%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3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롯데건설의 이 같은 실적 상승은 건축과 주택사업 부문이 견인했다.

한화건설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61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6.67% 증가했고, 매출액도 7119억 원을 기록하며 21.03% 늘었다. 한화건설 실적 개선은 지난해 주택사업 확대와 각 사업부문의 고른 선전, 해외사업 정상화 등의 결과다. 또 이라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만큼 올해 실적도 안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SK건설의 경우 비교 건설사 중 유일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SK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1조46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2% 줄었고, 영업이익도 442억 원으로 3.07%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79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90억 원보다 5.8% 감소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해외 사업 중 캐나다에서 오일샌드 플랜트와 베트남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하반기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강남역 驛勢圈 마지막 재건축 '서초 신동아'

대형사 수주戰 물밑작업

내달초 입찰공고… 7~8월 시공사 선정
1340가구… 투자자·실수요자 관심
대림산업 '아크로' 브랜드 앞세워 홍보
GS건설 '자이타운' 내걸고 집중 공략
현대산업개발 가세하면서 3파전 양상

서울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대형 건설사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사실상 강남역 역세권의 마지막 남은 재건축 단지여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입찰공고가 나온 뒤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되면 과열 양상까지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서초신동아재건축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초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당초 조합은 이달 중순에서 말께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이 대의원 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입찰공고 역시 15일 가량 늦춰졌다. 시공사 선정은 7~8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동아1·2차아파트'는 1978년과 1979년 1, 2차가 잇따라 준공됐다. 현재 총 7개동, 997가구 규모로 재건축 이후에는 최고 35층 14개 동 1340가구로 탈바꿈한다. 2호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가깝고, 강남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다. 음식점,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데다, 서초초, 역삼초, 은광여고 등 교육 인프라도 뛰어나 투자가와 강남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대형사들은 이미 치열한 물밑작업으로 수주 전쟁에 돌입했다. 현재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업체는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3곳이 대표적이다.

대림산업은 최근 강남3구 한강변의 최고 아파트로 급부상한 '아크로리버파크'를 내세워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 2013년 분양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당시 분양가가 3.3㎡당 평균 4130만 원에 달했지만, 완판을 기록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말 전용 84㎡가 23억7000만 원에 거래될 만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애초에 강남 프리미엄이 작용한 값이지만 반포한강공원으로부터 2~3분 거리에 자리한데다, 한강뷰 프리미엄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가격이 치솟았다는 분석이다. 한강변 단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대림산업은 '아크로' 브랜드와 관련 홍보물을 공인중개업소 등에 배포하면서 집중 공략에 나섰다.

GS건설은 '자이 타운'을 위한 공략에 나선다. 2015년 말 따낸 무지개아파트(서초그랑자이)와 함께 강남 재건축 주택시장에서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2015년 '서초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삼성물산은 초기 수주전에 뛰어들어 서초신동아아파트를 계기로 재건축 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업계에서도 국내 주택시장 1위 브랜드 '래미안'과 GS건설의 '자이'가 승부를 겨룰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삼성물산은 이번 재건축 사업에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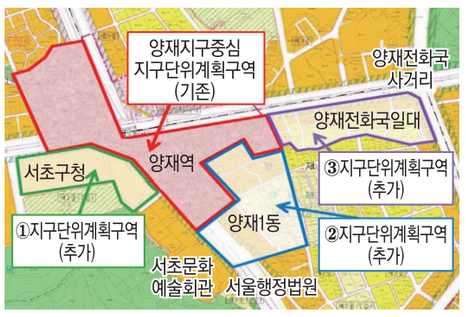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GS건설에 뺏겼던 삼성물산의 복귀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흐려지면서 결국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반면, 나머지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주 막바지엔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GS건설과 대림산업이 2파전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신동아1차 매매가격은 전용 82㎡ 의 경우 8억5000만~8억8000만 원, 95㎡는 9억5000만~9억8000만 원, 109㎡는 10억~10억5000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양재역 일대, 강남권 새 업무·상업지역으로

서초구, 총 19만5262㎡ 부지 용역



서울시 서초구의 양재역 일대가 새로운 강남권 거점 상업지역으로 거듭난다.

서초구는 양재역 일대를 강남 도심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시비 1억4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3400만 원을 들여 상업지역 확충을 검토하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초구 측은 "양재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가 인접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강남역에 비하면 낙후돼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양재역 일대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정비 용역에는 △강남대로·남부순환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양재역 주변 기능 재검토 △공공업무시설과 문화·주거·상업 시설이 공존하는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계획 △양재역 주변 업무·상업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역 대상은 2002년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양재역 주변(8만2550㎡) 중 양재1동 일대(4만9035㎡)와 서초구청사 부지(2만4591㎡), 2004년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양재전화국 일대(3만9086㎡) 등 총 19만5262㎡다. 용역은 5월 중순부터 시작해 1년에 걸쳐 수행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에 비해 낙후된 양재 일대가 서울 강남권의 신흥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현대BS&C, 고급주택 브랜드 '헤리엇' 론칭

현대BS&C(현대비에스앤씨)는 신규 고급주택 브랜드인 'HERIOT(헤리엇)'을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HERIOT'은 'Heritage'와 'Innovation', 'Her'와 'IoT(사물인터넷)'의 합성어로 '전통을 잇는 진정한 가치, 미래를 잇는 새로운 가치가 만나 탄생한 주거명작', '그녀를 위한 미래를 담는 주거명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현대BS&C 측은 설명했다.

현대BS&C는 주택시장 트렌드의 주역인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첨단 미래 기술을 주거공간에 담는 것이 'HERIOT' 브랜드의 콘셉트라고 덧붙였다.

'HERIOT'은 건설과 IT 최첨단 기술의 결합을 상징하는 현대BS&C의 국내 첫번째 고급주택 브랜드로, 전통적인 건설사업에 최첨단 IT기술력을 접목한 새로운 주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됐다.

정대선 현대BS&C 사장은 "HERIOT은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어온 현대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최첨단 미래 기술력을 주거공간에 융합하는 브랜드"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SK telecom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정과 함께 합니다

SK텔레콤은 세계적인 회사들과 손을 잡고
사물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기술력을 통해
미래의 일상이 될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으며,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상호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ICT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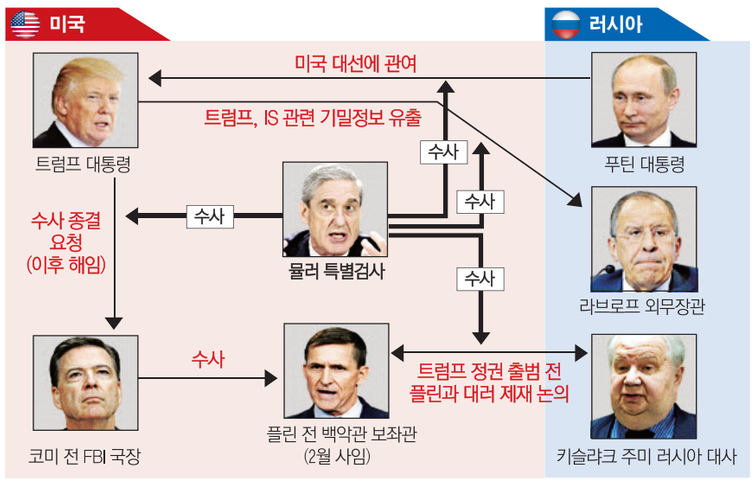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언제나
SK텔레콤이 함께 하겠습니다

70세 거물 사업가, 정치를 너무 얕봤다

불붙은 트럼프 탄핵론

'러시아 게이트' 파문 자초
특검 넘어가자 "마녀사냥"
오바마 레거시 청산만 몰두
사업가 기질 못버리고 '막말'
富 관련 이해상충 논란 무시
공화당 협조 필요한데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게이트 관계도 ※출처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캠프가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게이트'가 이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트럼프 탄핵론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정치적 한계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궁극적인 제재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뒤흔드는 위기의 발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피해 대부분은 트럼프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는 거듭 러시아와의 연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선 당시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검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이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인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도 최근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역사상 어떤 정치인도 나처럼 불공정하고 나쁘게 취급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해 서구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여러 사례를 들며 트럼프를 비꼬았다. 영국 역사학자인 댄 스노우는 일련의 트위터에서 로마의 발레리안 황제와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콩고의 독립운동가이자 쿠데타로 암살당한 파트리스 루뭄바 등 트럼프 발언을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했다. 트럼프의 신중하지 못한 충동적인 언행을 단칼에 논박한 것이다.

그만큼 트럼프는 자신이 사업할 때와 정치가의 정점인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때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할 때부터 러시아 게이트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를 둘러싼 이해상충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일자리 회복과 경제성장 가속화를 달성하려면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여당인 공화당과도 충돌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취임 이후에는 오바마케어 폐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 오바마 레거시 청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러시아 게이트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FT는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 정보기관과 명백한 전쟁상태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지난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FBI를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뜨렸다. 세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 등 법제화가 필요한 핵심 정책 어젠다들은 의회와의 갈등에 이어 러시아 게이트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런 혼란의 주범 역시 트럼프라는 것이 중론이다.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면서 트럼프는 FBI의 러시아 게이트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FT는 꼬집었다. 또 트럼프는 코미 해임 그다음 날 러시아 외교관들과의 회담에서 기밀정보를 유출시켜 미국 정부와 의회 모두를 기겁하게 만들었지만 러시아와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최근에는 그가 지난 2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FBI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밝혀져 더욱 파문이 커졌다. 결국 법무부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특검 임명을 주도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 부장관은 특검 발표 30분 전에야 이를 백악관에 통보해 트럼프가 사면초가에 몰렸음을 암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러시아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조사 등에 아예 손을 뗀 상태다.

과거 특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수사도 진두지휘하는 등 정권과 독립된 입장에서 형사고발을 포함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검 수사에서 트럼프의 기밀유출과 사법방해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사업할 때는 자신의 언행이나 결정이 실수로 드러나도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 정치는 다르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 탄핵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FT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최고경영자(CEO)로는 실패한 것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정부 정책과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FT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를 일구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70대의 사업가인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도 시험대에 오른 것은 마찬가지다. FT는 아무리 트럼프가 능력 부족이지만 이를 이유로 탄핵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보행자 거리에 차량 돌진… 아수라장 된 뉴욕 타임스 스퀘어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보행자 거리에 18일(현지시간) 차량 한 대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용의자는 근처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용의자는 뉴욕에 사는 26세 남성으로 테러와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인 경찰들.
뉴욕/보스턴글로브

"신흥국 승산 없다"… 인도·남아공 시장 발빼는 GM

인도 시장점유율 1%미만 저조
남아공 트럭 합작사 지분도 넘겨
"수익성 높은 美·中 집중할 것"



메리 바라〈사진〉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가 중대 결정을 내렸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서 연내에 철수하기로 한 것. 이미 유럽 자회사를 매각한 가운데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망 신흥시장에서까지 발을 빼기로 한 내막은 무엇일까.

18일(현지시간) GM은 인도 자동차 판매에서 연내에 철수한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GM은 또한 2015년 발표했다가 지난해 보류를 선언한 10억 달러(약 1조1230억 원) 규모의 인도 내 생산라인 추가 투자 계획도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수출용으로 전환한다. 현재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 탈레가온에서 운영 중인 제조공장을 수출 전용기지로 전환해 수출용 차량을 계속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구자라트 주의 할롤 공장은 이미 지난 4월 말에 생산을 중단하고 매각처를 찾고 있다.

GM은 또 다른 신흥시장인 남아공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인도에서는 일본 이스즈와 상용차 사업에서 합작해왔는데, 갖고 있던 합작사 지분의 30%를 이스즈에 넘겼다. 픽업트럭 사업도 이스즈 자회사로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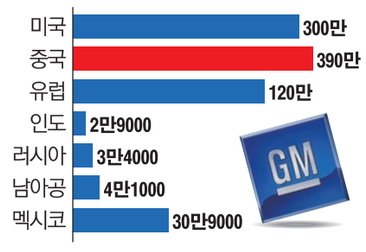
GM이 이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흥국 시장을 둘러싸고 폴크스바겐, 도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보고, 아예 수익 비중이 큰 미국과 중국 시장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GM은 인도에서 '쉐보레' 브랜드로 승용차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GM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2016년에 1%에도 못 미쳐 10위 이하로 추락했다. 인도는 중산층이 확대해 신흥국 중에서도 유독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거둔 성적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인도 내 승용차 판매가 2015년 대비 9%나 증가하며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GM의 판매는 21%나 줄었다. GM인터내셔널의 스테판 자코비 사장은 성명에서 "투자에 걸맞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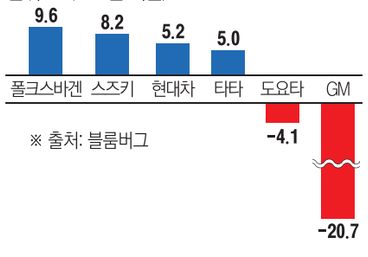
바라 CEO는 이번 해외 사업 재편에 대해 "수익성 향상과 장기적 성장 기회에 대한 투자다. GM은 세계에 있어서 적절한 시장에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GM은 이번 개편을 통해 연 1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M은 2016년 세계 판매 대수가 약 1000만 대였으며, 그중 70%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GM 글로벌 판매 비중 현황
단위: 대(2016년 기준)



주요 자동차 업체의 인도 판매 추이
단위: %(2016년 기준)



※ 출처: 블룸버그

브라질 대통령도 탄핵 위기

테메르, 수감 중 前 하원의장 비리 묵인 대가로 뇌물 받은 혐의
정치적 리스크에 금융시장 휘청… 증시 10%·헤알 가치 7% 뚝



브라질도 미국처럼 정치적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한 차례 겪었는데, 후임자인 미셰우 테메르(76·사진) 대통령까지 탄핵위기에 몰리면서 현지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장 초반 10% 넘게 폭락했다. 이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30분간 중지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통화 헤알 가치는 달러 대비 7% 넘게 추락해 일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브라질 증시와 통화 가치를 최악으로 이끈 건 테메르 대통령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현지 유력 일간지의 보도였다. 브라질 우 글로부(O Globo)는 전날 저녁, 테메르 대통령이 브라질 육류가공업체 JBS를 통해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긴 기밀 녹음본이 있다고 폭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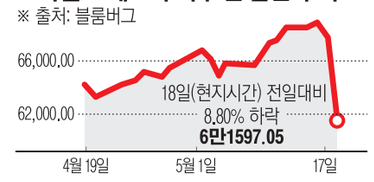
쿠냐 전 의장은 현재 부정부패 혐의로 복역 중이며 해당 보도에는 쿠냐 전 의장이 어떤 정보에 대해 입을 다물기로 한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녹음본은 JBS 경영진 측이 대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쿠냐 전 의장은 테메르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인물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영 에너지 회사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과 재선을 위해 브라질 연방 예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탄핵됐다.

가뜩이나 역대 최고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정부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악화하고 있고, 브라질 정부의 개혁 의지에 기대를 걸었던 투자자들도 브라질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분위기라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브라질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연방검찰은 이른바 '세 차 작전'으로 불리는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 세차 작전으로 한때 브라질의 영웅이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부패사건 피의자로 추락했으며,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됐다.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테메르 역시 전임자 호세프의 결정적 탄핵 계기가 됐던 페트로브라스 부패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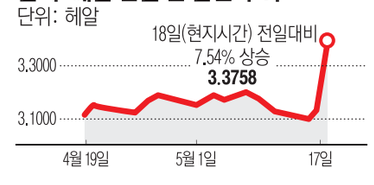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이번 뇌물 제공 혐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탄핵론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날 테메르 대통령은 TV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거듭 말하지만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 나의 행동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국가 재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한 달간 추이
※ 출처: 블룸버그



달러·헤알 환율 한 달간 추이
단위: 헤알



테크 인사이트 **구글 개발자회의 주목할 점 5가지**

꽃이름 맞히고 번역도 하는 '구글렌즈'

무선 가상현실 헤드셋 '데이드림'
'구글포토' 머신러닝으로 사진 분류
AR 이용한 '시각위치확인서비스'
'구글홈', 안내·통화 등 기능 추가

최근 IT 관련 뉴스를 읽다 보면 인공지능(AI)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차세대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AI 개발 단계가 아직 초기인 상황에서 이러한 미래는 머나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이번 주 시작된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I/O) 2017'에서 구글이 선보인 AI와 머신러닝은 기존에 알려졌던 기술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BBC는 17일(현지시간)"턱이 빠질 만큼 놀랍지는 않지만 구글의 점진적 발전을 볼 수 있다"면서 올해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5가지를 간추려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구글렌즈'다.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의 중심은 구글렌즈였다. 시각 기반 컴퓨팅 기능이 적용된 구글렌즈에는 AI 비서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됐다. 구글렌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시간 특정 사물을 인식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에 꽃을 갖다대면 구글렌즈는 그 꽃이 어떤 꽃인지를 알려준다. 구글렌즈는 번역 기능도 갖췄다. 구글렌즈로 메뉴판을 촬영하면 원하는 언어로 보여준다. 구글렌즈만 있다면 긴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직접 입력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로는 독립형 '데이드림' 가상현실(VR) 헤드셋이다. 기존의 VR 헤드셋과 달리 PC나 스마트폰과 연동되지 않는 무선의 독립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올여름 삼성전자의 갤럭시S8·플러스에서 구글의 VR 플랫폼 데이드림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페이스북 소유의 오큘러스와 함께 '기어VR'를 만든 삼성이 구글과 VR 플랫폼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번째는 '구글포토'다. 구글의 포토 앱은 현재 5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구글포토의 핵심에는 머신러닝이 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 사진들을 분류해주고 특정 이벤트에 맞게 사진을 정렬해준다. 안면인식 기능으로 사진을 공유하기도 더 쉬워졌다.

네 번째는 시각위치확인서비스(VPS)다.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해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GPS와 같은 기능이다.

마지막으로는 더 똑똑해진 AI 스피커 '구글홈'이다. 안내, 통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한층 유능한 비서로 변신했다. BBC는 구글홈이 아마존의 '알렉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대선을 축제처럼 만들어준 사진기획 참신"

본지 독자권익위 5월 회의



기계형·신철호·박재영·이정복(왼쪽부터) 위원 등이 길정우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올해 두 번째 이투데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18일 오후 이투데이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위원장)와 기계형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HK연구교수, 신철호 OGQ 의장, 이정복 삼본무역 대표 등 4명은 이번 회의에서 5·9대선 기획과 보도를 평가하고, 이투데이가 새로 시작한 한자 병기(倂記)문제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외부 위원 4명과, 길정우 이투데이 총괄대표를 비롯해 이투데이 측 독자권익위원인 임철순 주필, 간사인 장영환 편집부 부장대우 등이 참석했다.

편집·제목으로 흐름 한눈에
정책 밀착 분석은 아쉬워
불필요한 한자 많이 쓰면
되레 독자와의 소통 저해
가정의 달 의미 '패밀리'
무크지 발행 시도 신선

취임 100일이 갓 지난 길 대표는 회의에 앞서 상견례를 겸한 인사말을 통해 "젊은 언론 이투데이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로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길 대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여성개발 등 세 가지 어젠다를 중심으로 호흡이 긴 기사, 기획기사,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조간과 차별화된 신문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 대표는 또 온라인 기사를 중시하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잊지 않으면서도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퀄리티 퍼스트(Quality First)를 강조했다.

◇**대선 기획보도** = 이번 대선 선거운동기간(22일)에 이투데이는 지면 중 한가운데 2개 면을 펼쳐 지속적으로 '대선 영상기획'을 게재했다. 다양한 사진과 함께 그날의 중요한 메시지와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요점을 정리함으로써 선거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한 기획이다.

위원들은 이투데이의 '두 페이지' 실험을 호평했다. 신철호 의장은 "사진 중심 편집을 좋아해온 독자로서 재미있게 봤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어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만 지면을 구성한 뉴욕타임스와, 특별한 보상 없이 과제를 내주는데도 사진을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진공유 시스템 EyeEM(아이엠)을 소개했다. 그는 "이투데이도 이처럼 네트워크를 키워 독자들의 사진을 많이 활용하면 훨씬 현장감 넘치는 지면을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계형 교수는 이 기획의 제목을 보는 즐거움에 대해 언급했다. 기 교수는 '두 광장, 두 후보', '스튜디오 안은 긴장, 밖에선 지지자 응원', '오늘까지 盡人事(진인사), 내일은 待天命(대천명)' 등을 예로 들면서 "독자들이 선거를 축제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교수도 사진기획의 참신성을 인정하면서 주문을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주요 후보 5명을 모두 다뤄야 하는 기계적 균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사진 선별과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신문 사진은 보도사진이 아니라 기념사진, 가족사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진 석 장만으로 하나의 이슈를 다루는 '포토스토리' 식의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다. 긴 사진설명이라 할 수 있는 짧은 기사를 붙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반적인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후보들의 공약집 소개는 모든 언론이 다 하는 것이므로 이투데이의 특색을 살리려면 나열식을 지양, 독자와 밀착된 정책 한두 가지를 깊이 다루는 게 좋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정책 중심으로 기사를 쓴다면 더 상세하게, 사람 중심이라면 수혜자인 시민을 강조했어야 하는데 대선 기사에 시민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제지로서 정치기사를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종합지와 다른 정치보도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복 대표는 "대선 영상기획에 우리와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도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정치를 다룰 때 경제전문지로서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자 사용 문제** = 위원들은 이투데이의 한자 병기 방침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장은 "한자 병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제목은 병기가 아니라 한자 혼용(混用)"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어 우리가 한자를 쓰더라도 번체자(繁體字)와 간체자(簡體字)가 달라 소통이 쉽지 않고 독자들의 한자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사 본문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제목의 경우 '월街'처럼 영어, 한자, 한글이 섞인 어색함을 지적하며 "한자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한자 사용을 지양하고,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 교수는 지면에서 읽은 기사가 한자 때문에 휴대폰 검색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 교수는 이어 '알쏭語 달쏭思'(오피니언면 고정 게재)처럼 그날그날 지면에 등장한 한자 중 생소한 것을 풀이해주는 고정란을 별도로 운영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한자 때문에 독자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한자 병기나 혼용의 효과와 부작용을 일정한 시점에 전면 조사해볼 것을 건의했다.



◇**무크지 발행** = 위원들은 이투데이가 5월 연휴에 앞서 특별 발행한 무크지 '패밀리'(사진)를 좋은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패밀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투데이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미니 잡지(혹은 무크지)를 계속 발행할 계획이다.

정리=정수천 기자 int1000@

한국여성 인물사전 〈115〉허난설헌(許蘭雪軒)

표절 시비 불거진 조선 제일의 여성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1563~1589)은 이름이 초희(楚姬), 자는 경번(景樊)이다. '난설헌'은 스스로 지은 호다. '초희'는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莊王)의 지혜로운 아내 번희(樊姬)를 뜻하며 '경번'도 번희를 사모한다는 의미다. 아마도 번희처럼 남편을 지혜롭게 내조하라는 권고를 담았으나 난설헌은 다른 길을 걸어갔다.

대문장가 허엽(許曄)의 딸이자 허봉(許篈)·허균(許筠)과 남매 사이인 난설헌은 문예가 넘쳐나는 집안 분위기를 흡수하며 성장했다. 그 결과 여덟 살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지어 주변사람을 놀라게 했다. 또 집에 도교 서적이 많아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동생 허균의 회고에 따르면, 10대 중후반 무렵 한 살 아래의 김성립(金誠立)과 혼인했으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았고 시어머니 맘에도 들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아이 둘마저도 일찍 저세상으로 갔다.

난설헌은 스물일곱에 죽었는데 기록을 보면 석연치 않다. "나이 스물일곱에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사람들에게 '금년이 바로 3과 9(3×9=27)의 수에 해당하니 오늘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고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고 한다. 이 죽음을 두고 신비롭다고 보기도 하나 자살 가능성이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후에 난설헌의 작품은 유언에 따라 대다수 불태워졌다. 다행히 허균이 글들을 수집해 1608년에 '난설헌집'을 간행했는데 시 210수, 부(賦) 1편, 산문 2편, 1606년에 중국 명(明)의 주지번(朱之蕃)과 양유년(梁有年)이 쓴 서문이 담겨 있다. 그 후 이 시집은 몇 차례 더 간행되었고 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간행되었다.

한편, 허균은 누나에 대해 "하늘 선녀의 재주를 지녔다"고 평가했으나 김성립에 대해서는 "나의 매부는 경전과 역사책을 읽으라면 제대로 입도 떼지 못하지만, 과거 시험 문장은 요점을 맞추어서 여러 번 높은 등수에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글은 오늘날까지 김성립이 난설헌에게 기우는 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생이 내린 누나 부부에 대한 평가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김성립은 5대째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으로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가 근무한 홍문관(弘文館)은 문과 급제자 중 집안 좋고 글 솜씨가 뛰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부서였다. 김성립은 선조 대에 동인·서인으로 정치권이 분열하자 그 폐해를 비판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소신과 배포도 있었다.

현재까지 난설헌은 조선 제일의 여성 문인이라는 찬사와 함께 중국 시인들의 시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려 있다. 그러므로 진지한 사료 비판에 근거해서 생애 및 작품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재계 데뷔하는 '한진家' 3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전경련 사절단 이끌고 미국 간다



조현민〈사진〉 대한항공 전무가 재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조 전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 경제사절단 대표를 맡으며 첫 대외 활동 신고식에 나섰다.

전경련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서밋' 행사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행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주요 주지사 등 30여 명의 미국 정부인사가 참석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서밋(Invest in America Summit)' 참여를 위해 미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조 전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FTA 체결 이후(2011~2015년) 세계 교역은 10%가량 줄어든 반면, 양국 교역은 오히려 15% 가까이 늘었고, 지난 5년간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매년 5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결과,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역설했다.

조 전무를 비롯한 전경련 사절단은 공식 행사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바쁜 일정을 이어 나갔다.

한편, 19일(현지시간)에는 미 상무부 제임스 골슨(James Golsen) 국제무역 아시아담당 국장을 만나 한미 FTA 재협상 이슈, 국경조정세 및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

美보수언론 대부 폭스뉴스 설립자 로저 에일스 별세



미국 보수 성향 뉴스채널 폭스뉴스 공동설립자인 로저 에일스가 18일(현지시간) 77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이날 폭스뉴스는 에일스 부인 엘리자베스의 성명 발표를 인용해 에일스 타계 소식을 알렸다.

평소 혈우병을 앓고 있던 에일스는 합병증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TV 프로듀서 출신인 에일스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의 미디어 전략에 조언자 역할을 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다.

1996년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의 제의를 받고 폭스뉴스 창립 멤버가 된 에일스는 폭스뉴스를 CNN과 MSNB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 보수 성향 매체로 키웠다. 이날 21세기폭스 회장인 머독은 성명을 내고 "에일스는 훌륭한 방송인이었으며 지난 30년간 미국 언론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를 기억했다.

그러나 에일스는 말년엔 각종 성희롱 스캔들에 휩싸여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31년 만에 '차붐' 넘은 손흥민

리그 20·21호 연달아 터뜨려
유럽축구 시즌 최다골 기록



사진출처 토트넘 홋스퍼 트위터

손흥민(25·토트넘 홋스퍼·사진 왼쪽)이 리그 20·21호골을 성공시키면서 역대 한국인 유럽축구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80년대를 풍미했던 '차붐' 차범근의 19골을 넘어서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17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레스터시티 경기에 선발 출전, 두 골을 넣고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며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 20, 21번째 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맹활약했다. 이는 차범근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에 19골을 넣은 것을 31년 만에 넘어선 기록이다.

동시에 잉글랜드 무대 한국인 통산 최다 골 기록인 28골도 새로 수립했다. 종전에는 손흥민이 박지성과 함께 27골로 한국인 최다골 기록을 보유 중이었으나 박지성의 기록도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4골, FA컵 6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골을 합해 21골을 채웠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델리 알리, 무사 시소코와 함께 2선 공격수로 선발 출격했다. 손흥민은 전반 25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날 경기 첫 공격 포인트를 얻기도 했다. 시즌 20호 골을 뽑은 전반 36분에는 알리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띄워준 공을 오른발 슛으로 연결해 골문을 뚫었다. 손흥민은 손가락으로 '20'을 만들어 보이며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손흥민은 내친 김에 리그 득점순위 톱10을 노린다. 현재 남은 시즌 경기는 21일 밤 11시(한국시간) 헐시티와 치르는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단 한 경기뿐이다. 손흥민은 14골로 리그 공동 12위에 올라 있다. 한 골만 더 넣으면 15골을 채우면서 현재 득점 9위 선수들과 동률을 이뤄 톱10 진입이 가능하다.

김범근 기자 nova@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군사관학교에 1억 기부



사진제공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왼쪽〉 부영그룹 회장이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에서 황성진 공군사관학교장과 이병휘 항공우주연구소장 등 공군 관계자들과 만나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2008년부터 항공 발전과 공군 사관생도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을 지원해 왔다.

이 회장은 "공군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라며 "지·덕·체를 겸비하고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차세대 정예 공군 리더를 양성하는 데 이 기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출신인 이 회장은 공군예비역 모임인 공군인터넷전우회(ROKAFIS) 회장을 맡아 예비역과 현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군 정책지원 및 장병 위문·격려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인사

◆**의왕시** 〈4급 승진〉 △도시개발국장 오복환 〈전보〉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포티스** △대표 조재훈

◆**대전대** △산학협력단장 겸 K-코업 일학습일지원센터장 황석연

◆**SBS** ◇**보도본부** △보도본부장 장현규 △보도국장 최원석 △뉴스제작1부장 김명진 △정치부장 김승필 △정책사회부장 박병일 △시민사회부장 표언구 △문화과학부장 박진원 △기획취재부장 양만희 ◇사장 직속 △비서팀장 민성기

부음

▲**홍준기**(삼성SDS 부장)·**완기**(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씨 부친상, **유은정**(서울대 교수)씨 시부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02-3010-2231

▲**김선종**(LK 대표이사)씨 모친상, **이운진**(온세미닥터 상무)씨 장모상, **이선화**(대한치어리딩협회 회장)씨 시모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02-2227-7556

▲**이상설**(연합뉴스 정보사업부 차장)·**상민**(포스코 차장)씨 부친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02-2227-7500

▲**하인호**(프로축구 아산 무궁화 선수)씨 부친상 = 18일, 창원 경상대병원, 발인 20일, 055-214-1908



이순원의 **세상풍경** 소설가

나이를 잘 먹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이 쉰이 되었을 때 결심한 게 몇 개 있다. 그중 하나가 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소설로 주는 위안 말고는 절대 삶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자였다.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전혀 감동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남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는 줄 알고 계속 그런 척하는 걸 지켜보는 일도 피곤하다. 나는 애초 그런 그릇이 아니니 누구에게 감동 줄 생각을 하지 말자. 대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감동스러운 일을 오래 기억하고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자고 다짐했다. 이거야말로 매사 그래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사람 무뚝뚝하다'가 때로 '그 사람 과묵하고 듬직하다'로 해석될 때가 있다. 무뚝뚝하다는 것은 사실 친절하지 않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해석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는 사이 10년이 훌쩍 지나 어느새 예순이 되었다. 남들은 (내 자식들까지도) 아직 아니라고 위로하지만, 늙기 시작하는 나이다. 요즘 들어서는 아무 준비 없이 더 많이 늙기 전에 멋지게 늙고 잘 늙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이 말과 글을 다스리는 일이라, 특히 세상에 내뱉듯 던져지는 말과 글로 내 자리를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찾아온 어떤 후보 앞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공개적으로(기자들 앞에서)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말한 어느 노인과, 막 취임한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나도 자살하지 마시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또 다른 한 노인의 모습을 보며 몸으로도 잘 늙고 마음으로도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예의 바르게 늙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우선 그 일이 쉽게 느껴지는 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나는 저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 때문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저 사람들도 지금 내 나이 때는 정치판의 현역으로 저렇게 특정인을 대놓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때문이다. 나이 들면 모두 저렇게 되는 것일까.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두 저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노후 학습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류의 근본적 재앙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분별력 부족 때문일 테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아마도 두 가지쯤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늙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재미에 빠져 더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부 없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며 자제력을 잃어간 경우이다. 또 하나는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거나 빠져나가는 영향력과 기품의 빈자리를 노년의 투정과 앙분으로 채우며 그것을 남보다 더 많은 나이의 권리처럼 여겼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웃에 친절하고, 세상에 친절한 어른들이 많지 않은가. 나이가 막말의 권리가 되면 그의 늙음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 내 노년의 시작 역시 그렇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사유하자.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 前 현대경제연구원장

'功成身退'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자못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별것이랄 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구내 식사를 하기 위해 쟁반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식사 후 경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는 광경 등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매우 신선한 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 따지고 보면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이하였던 이전 정부에 질려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리던 소위 '3철'이 언론에 문자까지 보내며 공식적으로 퇴장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실세로 꼽히던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언론에 보낸 문자에 "문 대통령 당선으로 나의 임무는 끝났다. 그의 곁을 떠난다"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아예 해외로 출국해 추가적인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소위 '공성신퇴(功成身退)', 즉 '공을 이루고 나면 몸은 물러난다'는 고사성어에 충실한 몸가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어떻게 그 정부가 잘못될 수가 있겠는가? '공성신퇴'라는 사자성어는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에 나오는 글귀이다. 노자 제9장을 보면, "지니고 있으면서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갈고 갈아 날카롭게 만들면 오래 쓰기 힘들다. 집에 금과 옥이 가득하면 지키기가 어렵고, 부귀를 누리게 되어 교만하게 되면 자신에게 화근을 남기는 법이다. 공을 이루게 되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功成身退,天之道也]"라는 글귀가 나온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중국 역사상 공성신퇴를 실천한 예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재상이었던 범려(范蠡)이다. 월나라는 오(吳)나라와 국가의 존망을 건 사투를 수십 년간 벌였다. 흔히들 와신상담(臥薪嘗膽)으로 알려진 고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월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에 성공해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중원의 패자(覇者)로 올라서게 된다.

당시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두 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범려와 대부(大夫) 문종(文種)이었다. 그런데 본격적 권세를 누려야 할 시점에 범려는 외려 월왕 구천(句踐)에게 작별을 고한다. 구천이 펄쩍 뛰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나라를 반으로 나눠 줄 것이로되 만일 끝내 떠나고자 한다면 베어버리겠다[孤將與子分國而有之。不然,將加誅于子]"는 극언까지 하지만 범려는 "군주는 자신의 명령을 행하지만, 신하는 자기의 희망을 행할 뿐입니다[君行令,臣行意]"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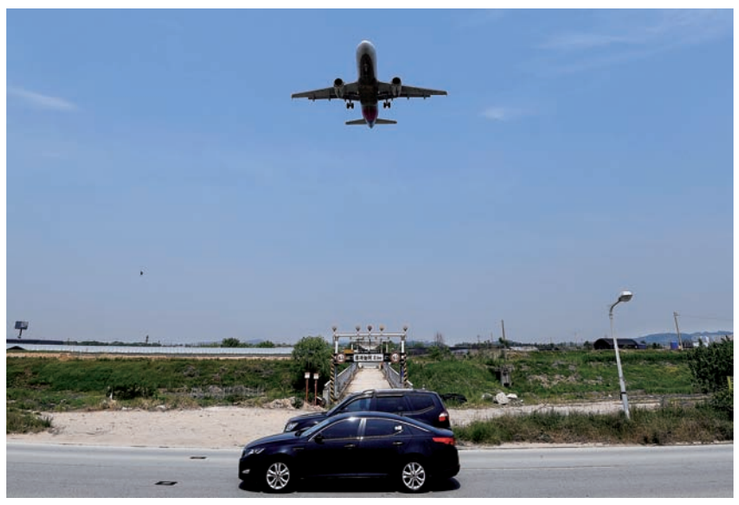
그러면서 대부 문종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편지를 남긴다. "하늘에 새가 다하면 좋은 활도 창고에 넣어 두게 되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겨 죽는 법[蜚鳥盡,良弓藏;狡兎死,走狗烹], 게다가 폐하의 상은 목이 길고 입은 새 부리처럼 생겼으니, 이런 인물은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누릴 수 없소. 그대는 어째서 떠나지 않는 것이오?"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고사성어를 낳은 명구절인데, 문종은 이 편지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월왕 구천은 문종에게 촉루검(屬鏤劍)이라는 명검을 보내는데, 문종은 이 검이 바로 과거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오자서(伍子胥)를 자결케 할 때 보낸 검인 것을 알고는 탄식하며 자결을 하였다는 고사이다.

그런데 이 범려의 경우도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 모시던 주군의 성공만을 바라고 물러나는 모습은 아니다. 의심 많은 주군에 의한 후환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주위 인물들의 공성신퇴는 일단 순수하다고 믿고 싶고, 그런 점에서 성공할 대통령의 좋은 조짐이길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한 컷

떠나자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사라진 이번 주 어떠셨나요? 숨을 쉬기도,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도 훨씬 수월한 한 주였습니다. 연일 기온이 오르며 봄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푸르른 하늘을 벗 삼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동근 기자 foto@

온라인 와글와글



우리나라 발명품 1위는 '훈민정음'…"한글은 세계최고의 문자!"

제52주년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들이 뽑은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에서 최고의 발명품에 훈민정음이 선정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전체 응답의 32.8%를 차지, 압도적 지지를 얻어 우리나라 발명품 1위로 꼽혔다. 특허청 페친들은 훈민정음에 대해 "세종대왕과 신하 및 국민이 함께 만든 상생의 이모티콘",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거북선이 18.8%로 2위, 금속활자가 14.7%로 3위, 온돌이 4.8%로 4위에 올랐다. 5위부터 8위는 커피믹스(4.2%), 이태리타올(3.2%), 김치냉장고(3.1%), 천지인 한글자판(2.8%)이 꼽혔다.

네티즌은 "발명품들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역시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 "역사를 바꾼 한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한양도성, 심우장, 최순우 옛집, 길상사 등 우리나라 근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재와 예술인들의 흔적이 가득한 성북동. 낮과는 또 다른 묘미를 선사할 '성북동 야행(夜行)'이 오늘과 내일 밤 펼쳐집니다.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화재 관람과 체험은 물론 음악회나 전시회,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근대 역사의 향기를 간직한 성북동 건물 세 곳, 심우장, 최순우 옛집, 방우산장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TlqZx6



이슈&인물

‘창업·융합’ 새 패러다임… ‘사회적 신뢰’ 바탕 규제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대담=김덕헌 정치경제부장

자본재 중심의 단조로운 품목 일부 국가에 치중된 수출구조 아시아·아프리카 시장 넓히고 서비스업 등 새 영역 개척해야

새 정부 중기·벤처 육성 환영 단순 지원보다 ‘혁신경쟁’ 초점 대기업·학계·국책연구소 등과 중기 R&D 개선 함께 고민을

“4차 산업혁명은 창업과 융합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17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산업연구원 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거나 섣부른 예측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길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융합·신뢰 사회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기술에 의해 전체적인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과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창업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창업이 활발하려면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는 쪽과 기득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도 개선을 통한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합심해 창업과 융합, 그걸 이루기 위한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17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산업연구원 원장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거나 섣부른 예측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길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 foto@

민간硏 출신 첫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한국산업연구원장은 1988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들어가 25년간 경제·산업 연구에 매진하며 동향분석실장과 경제연구본부장 등을 지낸 유명 이코노미스트이다.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1960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또 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산업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수출 구조 다변화·다중화 노력 필요

△보호무역주의와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수출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격과 물량이 상승해 추세적으로 당분간 수출 회복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주로 반도체 부문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제품 개발로 반도체 글로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이나 소재 부문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10대 주력 수출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조롭다. 지역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등 몇 개 지역에 치중돼 있고, 제품 구성도 자본재 중심으로 돼 있다. 대(對)중국 수출의 60%가 자본재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흐름은 다양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개도국이 성장하고 있고, 품목별로 자본재보다 소비재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제조품보다 서비스업 부문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도 뚜렷하다. 오프라인 무역보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무역 구조 변화에 발맞춰 우리도 경쟁력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해 어느 한두 가지 개선책이 아닌, 종합적인 다변화(多邊化)·다중화(多重化)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수출 확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4차 산업화·디지털화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업 수출이 늘고 있다. 기술과 지적재산권 수출에 이어 빅데이터 등 데이터 수출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서비스 기업은 큰 공장이나 거대 자본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스몰(small) 다국적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자신있게 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됐다.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갖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할 점은

“한미 FTA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만 이익을 보고 미국은 계속 우리한테 퍼 준다는 인식이 많은데, 우리는 미국의 주요 군사 물자 수입국이며 미국에 투자도 많이 늘렸다. 그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우리가 미국에 충분한 이득을 주고 있다는 점에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설령 한미 FTA가 폐기되더라도 관세율 상승으로 한국의 대(對)미 수출 감소는 13억 달러, 미국의 한국 수출 감소 폭은 16억 달러로 미국이 더 손해를 본다. 염두에 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다자간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양자 간 협상을 하고 단일 기업 단일 품목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과 잘 협력해 미국이 단일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을 통해 중소·중견·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시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강화하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는 것 역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고(高)지원 정책으로 성장을 가로막고 한계기업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정책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 혁신 경쟁에 포커스를 맞추는 중소기업 정책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기업과 연계해서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혁신 여건이 확실히 좋으니 지원을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연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 R&D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무조건 중소기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R&D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학계, 국책연구소와 연계해 중소기업 R&D 운영상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中 추격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때

△새 정부 들어 미세먼지로 인해 에너지 산업 정책에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에너지 산업 경쟁력 부분에서 조언을 해 준다면

“에너지 정책 전환은 4차 산업혁명과도 연결돼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인별·기업별로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에너지 효율이 오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중국의 제조업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최근 분석에 의하면 이미 수출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비가격 측면에서도 5년 내 중국이 따라올 수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중국의 추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박엘리 기자 ellee@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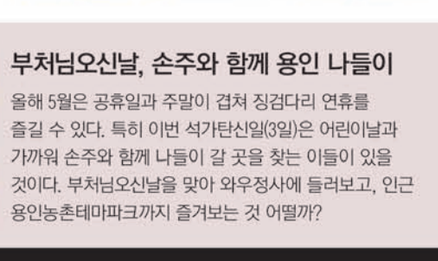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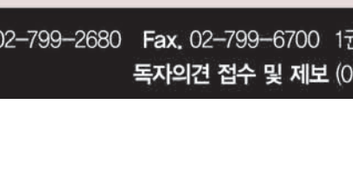
COVER STORY 가족여행
PART1. 속엣말 쏟아내는 ‘재미’ 가족들과 나누다 류시호 시인·수필가
PART2. 꿈 많은 아빠와 딸의 꿈같은 청춘여행
PART3. 58년 개띠 아버지와 88년 용띠 아들의 용기백배 세계 일주
PART4. 딸은 엄마랑 아들은 아버지랑, 따로 특별했던 그 여행
PART5. 80세 엄마와 특별한 동행 최은주 동년기자

문학관 답사기 | 영인문학관
文人戀情, 문인을 향한 연정 쌓이다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 싶다. 편한 것이 좋고, 느린 것은 싫고. 오랜 것은 쉬이 버려버리는 요즘 세상, 옛 추억을 곱게 간직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워하는 문인들의 안식처가 있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이 바로 그곳. 문학관을 가득 메운 모든 공기와 기운은 이 세상 모든 문인에게 보내는 연정이다. 컴퓨터 모니터 앞, 최첨단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깊게 내쉬어보고 싶다면 바람 잔잔히 와 앉은 그곳에 가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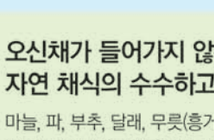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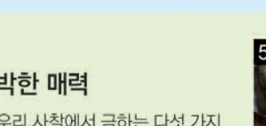


5월의 산책
부처님오신날, 손주와 함께 용인 나들이
올해 5월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석가탄신일(3일)은 어린이날과 가까워 손주와 함께 나들이 갈 곳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와우정사에 들러보고, 인근 용인농촌테마파크까지 즐겨보는 것 어떨까?



선라보가 만난 사람


“자식 잘 키우면 노후가 행복해져요” 자녀교육의 대모 전혜성 박사가 말하다


“음식을 의식주의 하나가 아닌 약으로 보라”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조화를 말하다


‘미풍이 아빠’ 배우 한갑수 태풍을 지나니 미풍 인생이 찾아왔다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채식의 수수하고 담박한 매력
마늘, 파, 부추, 달래, 무릇(흥거) 등 우리 사찰에서 금하는 다섯 가지 채소를 ‘오신채(五辛菜)’라고 한다. 재료의 성질이 맵고 향이 강해 수행에 방해가 돼 먹지 않는다. 사찰음식의 개념을 넘어 ‘한국 전통 채식’의 의미를 더한 무신채(無辛菜) 식단을 지향하는 맛집 ‘마지’를 찾아갔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20년째 도인처럼 사는 ‘남궁옥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포크송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남궁옥분은 이기적일 정도로 행복에 집착한다. “우주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녀는 “태양도, 나무도, 꽃도, 시냇물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아름답게 자라고 흐르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

동년기자의 페이지
최원국·이경숙·손웅익·변용도·박종섭 동년기자
그 사람, 참 괜찮았었는데…

부치지 못한 편지
황경춘 언론인
여자 친구,엽에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강단 있던 심재복, 뒷심 잃어 맘고생”

인터뷰 드라마 ‘완벽한 아내’로 복귀식 치른 배우 고소영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40대 중반
더 이상 도도하고 예쁜 척하는 연기는 못하겠더라
‘억척스런 워킹맘’ 복귀작으로 딱 일 거라 생각했는데
후반부 갈수록 갈 곳 잃은 캐릭터에 답답한 마음만
복귀작 연기 호평에 힘… 자존감·삶 만족도 높아져

배우 고소영(45)이 돌아왔다.

10년 만의 활동 재개다. 과거 고소영의 이미지는 도도한 청춘스타였다. 하지만 그녀가 복귀작으로 택한 KBS2 ‘완벽한 아내’는 그런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찰지게 욕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움도 한다. 할 말 다하는 워킹맘 심재복을 연기하는 고소영의 모습이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다. 극 초반 고소영의 연기에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중반부에 다다르자 “물이 올랐다”라고 호평했다. ‘완벽한 아내’로 복귀에 성공한 고소영에게 가족, 연기, 작품에 대해 물었다.

△10년 만의 복귀인데, 연기 호평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우려도 크고,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이다. 연기할 땐 정말 힘들었다. 원래 우리 드라마가 편성이 3월이었는데 2월로 당겨졌다. 대본은 6회까지 나와 있었지만 그 이후엔 촉박했다.”

△복귀 전까지 어떻게 지냈나

“활동은 안 했지만 참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라 내가 다 해주고 싶었다. 그 시간은 돌리고 싶어도 돌아오지 않는 시기니까. 3세, 4세 아이들의 재롱이 평생 효도라고도 하지 않나.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든다. 남편(장동건)과 아이들은 내가 일하는 걸 이해해 주더라.”

△복귀작을 ‘완벽한 아내’로 결정한 이유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더 이상 예쁜 척하는 연기는 못할 것 같더라. 그리고 심재복이 어떤 일에 휘말려 강단 있게 해 나간다는 캐릭터 설명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선택한 작품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

“작품을 마치면 시원섭섭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쉬움이 큰 것 같다. 초반처럼 재복이가 힘 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반부에 힘이 빠져 버렸다.”

△어떤 부분이 특히 생각과 다른가

“‘완벽한 아내’ 시놉시스를 보고 좋았던 건 현실적이기 때문이었다. 내 나이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역할 설정만 그럴 뿐 심재복이 하는 행동에 개연성이 없더라. 주체성도 없으니 답답했다. 그래서 작가 선생님께도 여러 번 얘기도 했다. 은희(조여정 분)가 세게 가면서 재복이가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았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연기하기 힘들 땐 어떻게 극복했나

“현장에서 많이 고민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봉구(성준 분)와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서 키스신을 빼기도 했다.”

△출연한 작품에 대해 아이들의 반응은

“촬영 때문에 자주 같이 있지 못하니까 아쉬워한다. 하지만 TV에 나오는 것은 신기해하고 좋아한다. 딸은 나를 그렇게 질투한다. 오늘도 머리를 자르는데 자기보다 예쁘면 안 된다고 하더라.”(웃음)

△일을 하면서 인간 고소영으로서 달라진 부분은

“그전엔 에너지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아주 사랑하게 된 거 같다. 이전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간이 있어도 집에서 구르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도 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아이들과도 집중해서 놀아 주니 만족도도 높고,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다.”

△앞으로 출연하고 싶은 작품은

“내가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다. 영화를 볼 때도 상영관을 찾아가야 하는 작품들을 많이 보는 편이다. 여자들이 주체성을 갖고 나오는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 여자가 메인인 작품이 많지 않은 현실이지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

김소연 기자 sue123@·사진제공 킹엔터테인먼트

난데없이 툭!… 지상파의 ‘수상한 광고’

“수익 증대” 예능·드라마 1·2부로 쪼개 ‘프리미엄 CM’ 넣어… 시청자 불만

지상파가 최근 예능 및 드라마에 ‘중간광고’ 격의 프리미엄 CM을 도입했다. 광고 수익의 증대라는 이면 속에 시청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최근 MBC와 SBS는 자사 인기 예능 및 신규 드라마를 2부로 나눠 방송하기 시작했다. MBC의 경우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발칙한 동거 - 빈방 있음’, ‘복면가왕’ 등을 1, 2부로 분할 방송하고 있으며 수목드라마 ‘군주 - 가면의 주인’(이하 군주) 또한 1시간짜리 방송을 2회 차로 분리해 방송 중이다. SBS는 ‘K팝스타6’를 시작으로 ‘미운우리새끼’,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 ‘백종원의 3대천왕’ 등 다수의 예능을 1, 2부로 나눴다.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또한 ‘군주’와 마찬가지인 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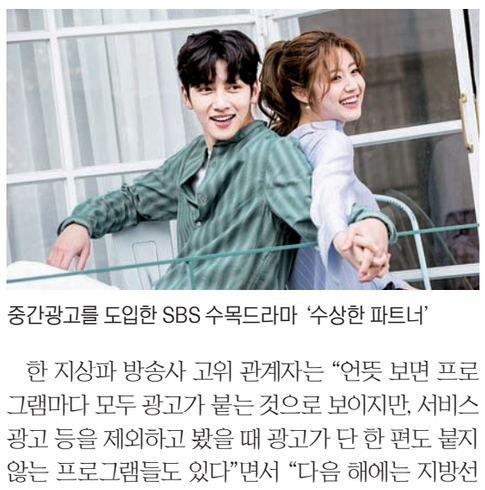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은 불법이다. 그런 만큼 SBS와 MBC는 한 회차의 방송을 마친 뒤 ‘이어서 다음 회가 방송된다’는 자막을 고지하며 광고를 넣은 뒤 다시 한번 전체 타이틀을 넣고 있다.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한 프로그램이 끝난 뒤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형태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상 중간광고를 행하는 모양새다.

방송사들이 프리미엄CM을 도입하는 것에는 광고 수익 악화가 큰 이유로 작용했다.

실제로, SBS의 경우 2016년 영업수익이 8290억 원으로 산출됐다. 그중 광고수익은 4609억 원으로, 2015년 광고수익 5260억 원에 비해 651억 원 감소한 수치다. 2016년의 전체 영업수익이 2015년의 7928억 원보다 362억 원 높게 추산됐음에도 광고수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SBS는 결국 상대적으로 광고가 적게 붙는 저녁 일일극을 폐지하며 비용 감축에 나섰다. 이에 더해 ‘K팝스타6’의 프리미엄CM을 15초 광고 1개당 3억 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는 성과를 얻으면서 프리미엄CM의 시행을 폭넓게 확대했다.

MBC, SBS의 행보에 시청자들은 볼멘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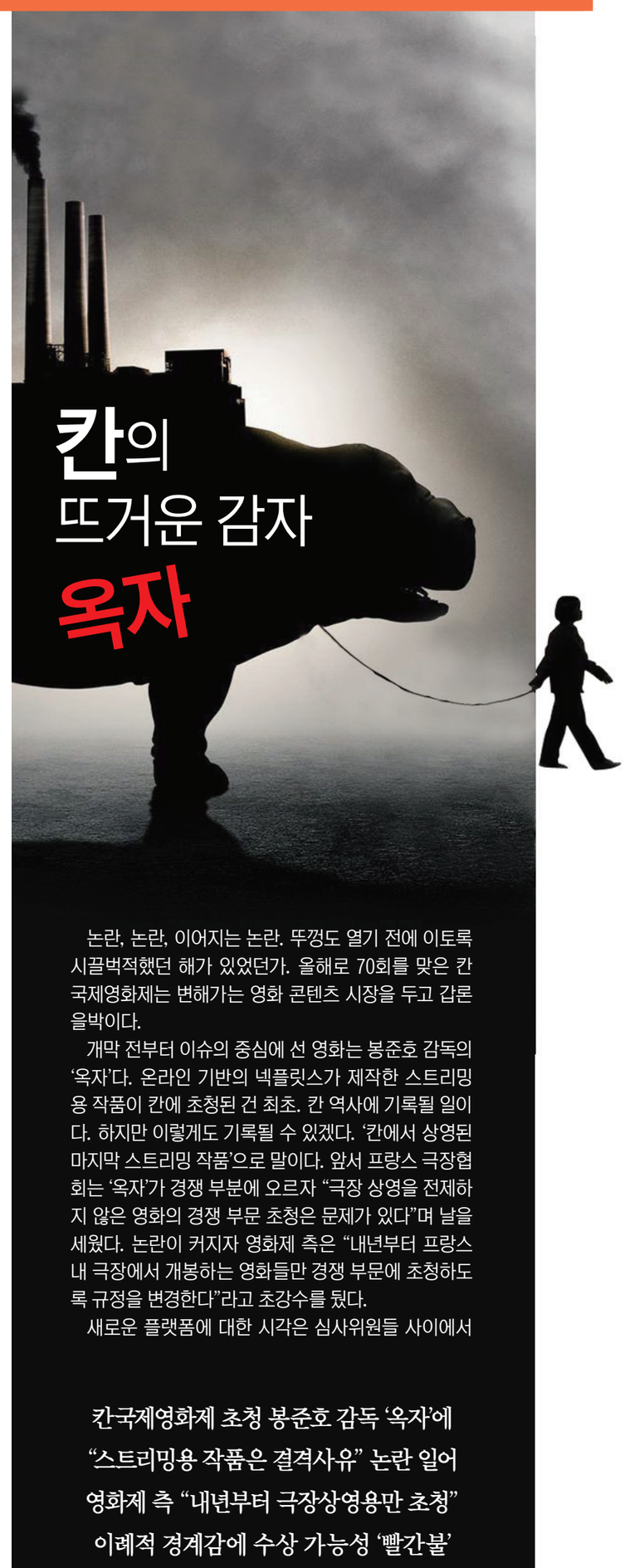
다수의 시청자들은 중간광고의 도입이 TV 시청의 몰입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시청자는 “몰입이 될 만하면 방송이 끊어지니 상대적으로 재미가 덜할 수밖에 없다.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중간광고가 생겨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중간광고를 도입한 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한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는 “언뜻 보면 프로그램마다 모두 광고가 붙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광고 등을 제외하고 봤을 때 광고가 단 한 편도 붙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있다”면서 “다음 해에는 지방선거와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행사들이 몰려 있어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수익 보전을 해놓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 또한 달라지고 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는 시간이 평균 20분 내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마트폰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60-7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보는 것보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마련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더 커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yeye@



칸의 뜨거운 감자 옥자

논란, 논란, 이어지는 논란. 뚜껑도 열기 전에 이토록 시끌벅적했던 해가 있었던가. 올해로 70회를 맞은 칸국제영화제는 변해가는 영화 콘텐츠 시장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개막 전부터 이슈의 중심에 선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다. 온라인 기반의 넥플릿스가 제작한 스트리밍용 작품이 칸에 초청된 건 최초. 칸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도 기록될 수 있겠다. ‘칸에서 상영된 마지막 스트리밍 작품’으로 말이다. 앞서 프랑스 극장협회는 ‘옥자’가 경쟁 부분에 오르자 “극장 상영을 전제하지 않은 영화의 경쟁 부문 초청은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논란이 커지자 영화제 측은 “내년부터 프랑스 내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만 경쟁 부문에 초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라고 초강수를 뒀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시각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칸국제영화제 초청 봉준호 감독 ‘옥자’에
“스트리밍용 작품은 결격사유” 논란 일어
영화제 측 “내년부터 극장상영용만 초청”
이례적 경계감에 수상 가능성 ‘빨간불’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 출연한 영화 두 편

도 갈린다. 17일 프랑스 칸 팔레드 페스티발에서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장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디지털 플랫폼은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이 극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옥자’의 수상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이다.

칸 영화제는 유독 심사위원장의 취향이 수상에 큰 영향을 끼쳐 온 영화제다.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을 당시, 심사위원장 은 장르 영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쿠엔틴 타 란티노였다. 넷플릭스가 영화 생태계를 어지럽힌다고 바라보는 알모도바르의 시각은 ‘옥자’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인 셈이다. 하지만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배우 윌 스미스가 “넷플릭스는 우리 아이들의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혀줬다. 넷플릭스는 우리 집에선 절대적으로 유익하다”고 알모도바르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옥자’를 둘러싼 논란은 영화제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봉준호 감독과는 다른 방향에서 홍상수 감독 역시 이슈의 중심에 있다. 홍상수 감독은 올해 ‘그 후’와 ‘클레어의 카메라’ 두 편을 출품시키며 칸이 사랑하는 거장임을 입증했다. 한 감독의 작품 두 편이 영화제에 동시 초청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 그런데 국내 여론이 주시하는 것은 조금 다른 포인트로 보인다. 두 영화 모두에 출연한 ‘홍상수의 뮤즈 김민희’ 말이다. 2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뜨겁게 달궜던 이 커플이 칸에서 전해올 소식에 귀추가 주목된다.

‘칸 영화제 후광’이라는 게 있을까.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영화제는 영화제일 뿐, 흥행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과 ‘칸 이슈몰이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엇갈려온 상황. 하지만 지난해 진출작인 ‘아가씨’ ‘곡성’ ‘부산행’ 세 편이 모두 흥행과 비평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얻으면서, 후자의 입장이 보다 탄력을 받아가는 분위기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영화는 올해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된 ‘악녀’와 ‘불한당’이다. 두 영화 모두 제2의 ‘부산행’을 노리겠다는 심사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乙입장 대변한 배역… 진심 담아 연기했죠”



인터뷰 배우 고아성

‘풍문…’ ‘오피스’ ‘자체발광…’ 현실적인 이야기에 큰 공감

제안받은 캐릭터, 내 취향 비슷 이젠 안 해본 연기 도전하고 싶어

11년전 ‘괴물’ 이젠 별 의미 없어 그 이후 작품 활동이 더 중요

호랑이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어른들은 말했지만,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민함, 그리고 깡. 4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의 은호원(고아성 분)이 깡 있는 인물이라면, 그를 연기한 고아성은 매우 영민한 배우였다. 말투는 나직했지만 태도는 강단 있었다. 자신의 가능성을 한정하는 우(愚) 따위는 범하지 않았다. 과연,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호랑이굴에 끌려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배우’라고 인터뷰를 마친 뒤 생각했다.

△SBS ‘풍문으로 들었소’, 영화 ‘오피스’에 이어 MBC ‘자체발광오피스’까지 을(乙)의 입장을 자주 그렸다

“그런 작품에 더욱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간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작품 수 자체가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적인 캐릭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컸다.”

△현실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준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반응을 살펴보면 제각각이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가 현실적이라 공감이 간다고 하는데, 부당한 일에 앞뒤 가리지 않는 내 모습이 판타지스러워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분도 있었다. 기준을 하나로 정의하기보다는 많은 의견을 다채롭게 주워 담으려고 했다.”

△당신이 연기한 지호원에는 실제 고아성의 모습이 얼마나 묻어 있나

“매 순간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말투나 표정 모두 역할마다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런데 얼마 전 만난 배우 류현경이 ‘어떤 역할을 하든 모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더라. 듣고 보니 매번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욕심처럼 느껴지더라. 내가 연기하는 것이 진심이려는 노력을 더욱 하게 된다.”

△어린 시절 데뷔했지만, 출연한 작품 수는 많지 않다. 여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이유 때문인가

“얼마 전에 ‘풍문으로 들었소’ 종영 인터뷰를 다시 봤다. ‘여배우들이 할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은데 작품 선택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다행히 내게 제안 오는 역할이 내 취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들어오는 작품에 애정을 더해서 만들어낸다’고 답했더라. 정말 모르는 소리였다. 그때의 내겐 운이 따라줬을 뿐이고, 앞으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당신이 말하는 노력은 취향과 다른 역할도 소화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함인가

“그렇기도 하고 안 해 본 것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체발광오피스’ 역시 내겐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래서 더욱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났다.”

△영화 ‘괴물’ 이후로 작품을 할 때마다 커다란 기대가 고아성을 따른다. ‘괴물’은 고아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11년 전 작품이다. ‘괴물’ 이후로 삶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나도 그렇게 느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 ‘괴물’ 이후 연기를 계속해 온 것이 내겐 더 결정적이었다. 꾸준히 작품을 해 왔다는 것에서 의미가 더욱 생긴다.”

글/이은호·사진/윤예진 기자 wild37@



사진제공 tvN

新예능 트렌드

‘쿡방’ 가고 ‘욜로’ 온다

“후회 없는 인생 살자” 콘셉트로 나영석 PD ‘윤식당’ ‘알쓸신잡’ “연예인 삶 통해 대리만족 느껴”

한동안 방송계를 지배하던 ‘쿡방’과 관찰 예능 시대가 저무는 모양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가 예능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경쟁 일변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욜로’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자신에 집중하고 자아를 돌아보자는 의식도 함께 확대됨에 따라 ‘욜로’ 라이프를 십분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론칭 중이다.

나영석 PD는 tvN 새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을 새롭게 선보인다. 세상 온갖 화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사석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된 예능으로, 지식과 잡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tvN ‘우리들의 인생학교’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아성찰’이라는 측면에서 ‘욜로’와 궤를 함께한다. 출연자들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자신에게 보다 더 집중하며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O tvN ‘주말엔 숲으로’는 기획 의도에서부터 ‘욜로 라이프’를 전면부에 내세웠다.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일상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힐링에 대해 소개한다.

현실적으로 ‘욜로’ 라이프를 살기 힘든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

tvN ‘윤식당’은 가장 대표적인 예다.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라는 일상의 판타지를 실현시키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제작발표회 당시 나영석 PD는 “그림 같은 곳에서 낮에 고생을 하고, 밤에는 그대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삶을 보여 드리며 대리만족을 드리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욜로’가 급부상함에 따라 푸드 전문 채널 올리브는 푸드 외에도 여행, 리빙 등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범주를 확대했다. 채널 콘셉트를 ‘한 번뿐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취향’의 발견’으로 잡고 즐거움에 가치를 둔 공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나섰다. 이에 ‘어느 날 갑자기 백만 원’, ‘섬총사’ 등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는 “대리만족은 그동안 방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요소 중 하나다. 여기에 ‘욜로’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며,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연예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다양한 삶의 형태가 그려지며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

김예슬 기자 yeye@

예능이 키우면 음원 대박, 맞지?

언니쓰 2기 데뷔곡, 일주일째 차트 1위
‘프로듀스 101’ 작년 이어 잇따라 흥행
가요계 “여름 무도가요제도 경계 대상”



사진제공 KBS

2년 만에 돌아온 싸이를 이긴 것은 공포의 외인구단 ‘언니쓰’였다.

KBS2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언니쓰 2기 멤버들의 데뷔곡 ‘맞지?’가 12일 정오 공개 이후 일주일째 음원차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맞지?’의 거센 공격으로 싸이는 8집 앨범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신곡 ‘I LUV IT’, ‘NEW FACE’를 선두에서 내줬다.

트와이스의 컴백에도 ‘맞지?’의 순위는 밀리지 않고 있다. 아이유, 효린, 위너, 혁오 등 내로라하는 가수들도 언니쓰 순위보단 낮다.

언니쓰의 음원 차트 석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기 멤버들의 ‘Shut up’ 역시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를 석권했다. 이런 언니쓰의 흥행 뒤엔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있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방송을 통해 매주 노래와 안무 연습 장면이 나가다 보니 “나도 다 외웠다”는 애청자들도 적지 않다. ‘예능이 밀어주면 뜬다’는 가요계 공식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팀과 노래가 만들어지고, 그 노래를 부를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선보이는 건 이제 익숙한 소재다. 그리고 예능의 재미, 감동을 느꼈던 시청자들이 다시 노래를 찾아 들으면서 음원 석권까지 이어지는 것. MBC ‘무한도전’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가요제 신곡뿐 아니라 ‘토토즐’ 특집에 나온 1990년대 가요들이 음원차트를 점령한 일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풍이 불고 있는 Mnet ‘프로듀스 101’도 마찬가지다. 주제곡뿐 아니라 최종 11인으로 데뷔한 I.O.I의 앨범도 매번 화제다. 시즌1으로 결성된 걸그룹 I.O.I는 5월 4일 첫 미니앨범 ‘드림 걸스’ 발표 이후 ‘Whatta Man’, ‘너무너무너무’, 마지막 싱글 앨범 ‘소나기’까지 연속 흥행 행진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연말 가요 시상식 신인상을 석권하며 괴물 그룹의 탄생을 알렸다. I.O.I로 활동해 다른 걸그룹으로 데뷔한 멤버들도 팀의 센터로 활약 중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가요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좋은 앨범을 내는 것보다 방송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진리가 됐다”며 “올여름이 ‘무한도전’ 가요제가 있는 해다.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때는 최대한 피하려 한다”고 전했다.

방송가에서는 “무조건 예능에 나왔다고 다 잘되는 건 아니다”며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쉽게 만드는 게 아니다. ‘Shut UP’은 박진영의 자작곡이고, ‘맞지?’만 보더라도 김형석 작곡가, 김이나 작사가 등 최고의 실력자들이 참여해 나온 완성품”이라면서 수준 높은 노래와 방송의 홍보 효과가 더해져 음원 차트에서 성과를 거둔 거라 분석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트와이스, 히트 욕심이 부른 ‘균열 시그널’

전작 이어 신곡 ‘시그널’도 발랄하게… “안무 연결·그루브한 멜로디 등 어색”



걸그룹 트와이스는 어디에서나 애교를 요구받고 애교를 보여준다. 녹음을 할 때나 무대 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TV 인터뷰에서, 심지어는 시상식에서까지. ‘발랄하고 귀여운 소녀’라는 트와이스의 콘셉트는 이들의 애교 혹은 애교 섞인 안무와 가사를 통해 강화된다.

신곡 ‘시그널’ 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너에게 보낸 호감의 신호를 네가 알아주길 바란다는 ‘시그널(Singal)’의 내러티브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네가 너무하다는 ‘티티(TT)’나 내 마음이 열리게 두드려달라는 ‘낙낙(Knock Knock)’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와이스는 좋아하는 마음은 열렬하지만 아직은 순진무구한 소녀의 모습을 이어간다.

율동에 가까운 포인트 안무 역시 전작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손과 팔을 이용해 네 개의 하트를 그리는 동작은 ‘샤샤샤’나 ‘너무해’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TV에 나와 하트 안무를 시연하면서 애교를 보여줄 트와이스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떠오른다.

그렇다고 해서 트와이스가 그동안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아니다. 발랄함을 최전방에 내세운 전작들과 달리 ‘시그널’은 묵직한 808 베이스 비트를 도입했다. 포인트 동작 몇 가지를 제외하면 안무는 예전보다 격하고 빨라졌다.

박진영의 존재감도 상당하다. 모모와 미나의 랩은 과거 지오디의 랩과 비슷하고, 나연과 지효가 부르는 후렴구 멜로디는 미쓰에이의 노래에 들어가도 이질감 없을 정도로 박진영의 색깔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시그널’은 트와이스의 히트 공식과 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박진영이 걸그룹에게 입혀온 색깔의 콜라주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큰 숙제는 각각의 요소들이 잘 섞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만드는 것일 텐데, 여기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파워풀한 안무에서 귀여운 포인트 안무로의 급속한 태세 전환은 다소 급격하게 느껴지고, 박진영 특유의 그루브한 멜로디와 후크성 강한 후렴구의 연결은 어색하게 들린다.

‘시그널’은 트와이스가 처음으로 변화를 시도한 노래이자 일본 정식 데뷔 전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곡이다. 노래의 성공 여하는 그래서 더욱 중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음원 순위는 전작에 비해 낮다. 어쩌면 방송 활동을 통해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보다 촘촘한 얼개가 필요하다.

글/이은호·사진/윤예진 기자 wild37@

혁신경영으로 호남권 영업이익률 1위 달성한 '매출 제조기'

골프장 위탁경영 '成功 스토리' 쓰다

골프&골퍼

홍철유 골프인코리아 대표

"2000년대 전반기 일본이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골프산업이 침체기에 봉착했을 때 골드만삭스(아코디아골프)와 론스타(PGM홀딩스)는 혁신적인 골프장 경영 및 위탁경영을 추진해 일본의 골프산업의 경기를 활성화시켰죠."

평생 군에 몸을 담다가 별을 단 뒤 골프장 경영 전문가로 변신한 사업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홍철유(60) 박사다. 그가 골프장 전문기업인 골프인코리아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위탁경영에 나섰다.

홍 대표가 골프장 경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9년 한국과 일본 골프장을 비교한 논문 '골프장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자산과 고객만족 및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다. 이때부터 위탁경영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첫발을 디딘 영광컨트리클럽 대표를 필두로 필로스골프클럽 총괄본부장, 석정힐컨트리클럽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골프장 위탁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및 경영혁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호남지역에서 영업이익률(50.1%) 1위를 달성하는 등 '매출제조기'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난해 골프산업 부문 '자랑스런 한국인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업의 귀재답게 그는 매일 새벽 별보고 출근하고 별 보면서 퇴근했다.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해 골프장 코스를 점검한 뒤 현관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면서 영업활동을 병행했다. 그리고 전국 골프연습장, 대행사 및 여행사, 골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영업을 했다. 스크린연습장, 골프연습장, 골프대행사, 골프용품 판매장을 역시 직접 방문해 영업 활동을 하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 발품 팔아 얻은 고객 및 관계자들의 명단이 그의 수첩에 빼곡히 메모돼 있다. 이것이 귀중한 데이터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위탁경영자는 성공적인 실무 경험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혁신경영으로 골프장 위탁경영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인코리아는 골프인코리아CC를 인수하면서 운영을 비롯해 골프장 전체 위탁경영, 부분 위탁경영, 경영지원, 컨설팅 등 골프장 경영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골프장 인수에 대해 그는 "최상의 골프장 경영 및 위탁경영에 대한 모델 골프장을 만들어서 차별화된 다양한 마케팅, 경영혁신, 고객중심의 경영, 최상의 코스관리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경영 이윤을 창출하는 실무 과정을 오픈해 골프인코리아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골프장 위탁경영은 골프장 전체 위탁경영과 부분 위탁경영으로 구분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맞춤식 위탁경영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위탁경영은 골프장의 브랜드 향상 및 경영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적이며, 골프장과 골프인코리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경영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 골프장 위탁경영이 성공한 그 이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혁신, 서비스 특강강사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활용한 고객중심의 경영, 전문가 수준의 잔디관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모든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골프장 위탁경영을 선도함은 물론 반드시 골프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전역한 뒤 골프장 경영 전문가로 변신한 홍철유 골프인코리아 대표.

軍 장성 출신으로 교수·마케팅 전문가 변신
브랜드 향상·이윤 창출 '골프장 상생' 자신감
작년 골프부문 '한국인 경영혁신대상' 수상
전국 돌며 발품 팔아 고객유치 마케팅 활동
고객중심 경영에 코스관리 전문기업 활용도
"골프장 희망땐 언제든 무료 컨설팅할 것"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골프장과 골프인코리아의 안전한 상호 신뢰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에 상응한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 신용을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을 직접 총괄한다. 골프장의 생명인 코스관리는 협약을 기체결한 코스관리 전문기업의 전문성과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양질의 잔디전문 비료와 농약을 활용한다. 최상의 잔디 관리는 물론 획기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식음 파트도 골프장에서 고객들이 이미 인정해준 다수의 요리전문가를 영입해 최고의 음식의 맛으로 승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골프장 위탁경영과 관계없이 골프장의 핵심인 경영이윤 창출 및 고객중심의 경영, 경영혁신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골프장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것.

'매출 제조기' 홍 대표가 수장은 맡은 골프인코리아의 비전은 무엇일까.

첫째, 매출제조기 골프장 마케팅 전문 경영사장의 직접 경영으로 반드시 경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 사장으로서 실무 경영을 통하여 보여준 경영혁신 능력과 호남권 영업이익률 1위(50.1%, 금감원 자료)의 영업능력을 활용하고 전문가 수준의 경영 진단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며 300% 이상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한 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골프장 마케팅 경제학 박사의 차별화된 다양한 마케팅과 경영혁신 등으로 반드시 경영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상의 영업 인프라 구축으로 반드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골프인코리아는 골프장 경영에 대한 오랜 기간의 경험을 활용하고 골프인코리아CC 경영을 통한 매출 증대 방안 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사장이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관리하는 진성고객 1만5120명(서울 고객 5511명), 골프연습장 1218개, 골프단체 1645개를 활용해 영업실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잔여팀 등에 대해서는 메이저 골프대행사, 충성고객, 연습장 프로, 골프단체를 통한 평소 친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으며 여행사, 패키지단체 등을 통한 다수의 패키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솔선수범으로 실무 경험에서 성과를 올린 매뉴얼에 의한 직원 및 경기보조원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고객관계관리(CRM)를 활성화하는 등으로 재방문을 유도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등 최상의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양질의 비료·농약을 직접 생산하는 코스관리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 40년 전통의 코스관리 전문기업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양질의 잔디 전문 단백질 비료·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최상의 코스 관리는 물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자체 잔디연구소(5만㎡)를 갖추고 있어 최상의 잔디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인코리아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마케팅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골프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독특한 이력을 소유한 홍 대표는 솔선수범을 통해 가는 곳마다 조직 및 경영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등 성공 신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있다. 지인들은 그는 자신을 희생해 오직 조직의 발전을 위해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육군에 근무할 때는 장병부대 배치 시 최초 공개 분류 제도를 시행했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통합민원센터를 설치했다. 비효율적인 육·해·공군 인쇄창을 통합한 슬림화된 국군인쇄창을 창설하는 등 수많은 혁신 과제를 추진해 일반출신(3사 16기)으로서는 최초로 육군 인사행정병과 의장 겸 육군 인사행정처장에 보직했고, 1400여 명의 동기생 중 1호 장군으로 진급했다.

군에서 전역한 뒤 골프장 마케팅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해 목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공하는 리더십'과 '국가 안보론' 등에 대한 차별화된 강의를 해 인기교수로 평가를 받았다.

골프장 전문경영인으로 시작할 때 군 골프장 사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 공채를 통해 영광CC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최대의 강점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품이다. 30년 동안 대통령 주관 60, 61주년 국군의 날 메인사회 진행, 의전책자 3권 발간 등을 맡은 의전전문가, 서비스 및 리더십 특강강사로 활동한 경력들이 차별화된 능력으로 나타났다. 홍철유 대표가 국내 골프장의 위탁경영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는지 궁금하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칩샷을 하고 있는 프로골퍼 이정은.

'트러블 샷' 극복, 순간 상황판단이 중요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아마추어나 프로골퍼나 라운드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미스 샷으로 나무숲으로 들어가거나 러프에 빠지기도 하죠. 볼은 시도 때도 없이 벙커는 물론이고 워터해저드에도 곧잘 들어갑니다. 이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만 스코어가 좋아지죠. 특히 트러블 샷을 하는 경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이는 큰 오산입니다. 프로골퍼들은 이미 기량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프로조차도 큰 실수를 합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텍사스오픈에서의 일. 케빈 나(나상욱)가 파4에서 티샷 실수와 숲속에서의 무리한 샷으로 무려 16타를 쳤죠. 나무숲으로 들어가 빠져나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린 앞에 나무가 있거나 워터해저드, 벙커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스코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도전하는 골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기플레이어 정도밖에 안되는데 모험을 합니다.

핀과의 거리는 85야드. 그런데 볼 앞에 자신의 키보다 몇 배나 큰 나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나무를 넘기려고 하죠. 피칭 웨지나 어프로치 웨지 정도면 나무를 쉽게 넘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볼이 나무 가지 사이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99.9% 나무에 걸립니다.

'볼은 잔가지에도 걸린다'는 골프 금언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핀을 바라보지 말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로프트가 큰 6, 7번 클럽으로 나무 가지 아래쪽으로 낮게 굴려 치는 것이 상책이죠. 펀치 샷이 유리합니다.

특히 러프지역에 들어가 볼이 잔디에 묻혀 있다면 주의를 요합니다. 앞쪽에 나무가 울창한데 앞만 보고 플레이하면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옆이나 뒤로 빠져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로프트가 작은 클럽을 짧게 잡고 펀치 샷으로 일단 페어웨이로 볼을 꺼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죠. 트러블 샷을 할 때는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이버 1분 골프레슨 교습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老眼' 늦추려면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지난주 진료실을 찾은 신동윤(44) 씨는 황사, 미세먼지가 심하던 지난 주말도 마스크를 쓰고 골프장을 찾았다는 골프 마니아다. 골프도 열심히 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최신 전자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뤄 나름 나이보다 젊게 사는 영포티(young 40)으로 불린다고 했지만 시력만큼은 나이를 속일 수 없다며 울상이었다.

먼 거리는 잘 보이지만 최근 들어 휴대폰 화면 속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고, 골프를 할 때도 가까운 거리의 시야가 뿌옇게 보여 스코어를 낮추는 데 점점 한계를 느낀다며 노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노안은 대표적인 중년 안질환으로, 우리 눈 속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화해 가까이 있는 글씨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야가 선명하려면 탄력있는 수정체와 튼튼한 조절근육이 제대로 작동해 망막에 상이 뚜렷히 맺히도록 초점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투명하고 탄성이 있던 수정체가 뿌옇고 딱딱해진다. 또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조절근육이 쇠퇴하기도 한다. 그래서 티업 시 가까이 있는 티가 뿌옇게 보이거나 돋보기 안경 없이는 스마트폰이나 문서의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노안은 때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억지로 가까운 것을 보려 눈을 찌푸리거나 집중하다 보면 눈에 압박감과 피로가 들고 두통이 생기는 등 안정피로(眼睛疲勞)를 겪게 된다. 심한 경우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 속 불편도 크다. 예전 같으면 금세 읽어낼 신문기사도 더듬더듬 보게 되고 근시가 함께 있는 경우 가까운 곳을 볼 땐 돋보기를, 먼 곳을 볼 땐 일반 안경을 써야 해 불편하다. 약을 구분하지 못해 잘못 복용하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을 당하기도 한다.

일생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노안을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몸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 눈을 잘 관리해주면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우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한다. 과도한 자외선은 수정체의 변성을 촉진한다. 요즘처럼 햇볕이 강한 한낮에 야외 라운딩을 한다면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고글처럼 눈을 완전히 보호하는 형태라면 바람과 미세먼지를 막아 안구 건조증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 평소 눈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다.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를 식탁에 자주 올려라. 황반에 영양을 공급해 노안뿐만 아니라 실명질환인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미 노안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수술로 노안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짝눈을 만들어 시야의 원근 범위를 넓혀주는 LBV 노안 라식이 각광이다.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양쪽 시력을 교정해 근거리와 원거리, 중간거리까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딱딱해진 수정체를 꺼내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과 전문의와 신중한 상담 과정을 거친 뒤 선택해야 한다. 당뇨에 의한 망막출혈 혹은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도 수술이 어려우므로 충분한 사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5~7번 아이언 길이가 8번과 같은데…비거리 10야드씩 차이나네

도깨비 아이언 'DGB111' 눈길

도깨비골프, 헤드 로프트 각도 등 차이

"필드 위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골프(www.도깨비골프.com.)에서 샤프트 길이가 동일한 포지드 아이언 DGB111〈사진〉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모든 골퍼들이 롱아이언을 부담감 때문에 좋은 샷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해 8번 아이언의 길이로 7, 6, 5번까지 똑같이 짧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비거리는 각 번호 별 10야드씩 차이가 나도록 특수제작을 한 것이 특징이다. 샤프트 길이가 짧고 같은데 비거리의 일정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헤드 로프트 각도의 차이와 특수 샤프트로 밴딩, 킥킹 포인트의 조절, 무게와 크기가 동일한 헤드 등 3가지다.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은 보통 8번 아이언까지는 자신있게 스윙을 하지만 롱아이언을 마주치면 힘이 들어가고 급해져서 실수 샷을 유발한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아이언이다.



특히 어드레스 시 볼의 위치가 모두 같은데다 라이각이 동일해 스윙 플레인이 모두 같다는 것이 장점이다.

프로골퍼들 중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비롯해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 많은 선수들이 그립을 아주 짧게 쥐고 스윙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미국 아마추어 US오픈 챔피언과 전미 대학골프 챔피언인 디셈보(미국)는 모든 아이언을 7번 아이언의 길이로 세팅해서 사용 중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샤프트의 길이가 비거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오는 31일 센트럴플라자에 장서 5만권을 보유한 도서관을 열고 복합문화공간을 꾀한다. 조감도제공 신세계그룹

우리 '북맥' 할까요

〈Book+Beer〉

주말에 어디 갈래?

도심 이색도서관 여행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몰'

책 5만권 보유 열린도서관 31일 첫선

워커힐 호텔 '워커힐 라이브러리'

차·맥주와 함께 독서… 음악감상도

그랜드 앰배서더 '이그제큐티브…'

비숙박 고객도 남산 풍경 즐기며 휴식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주말에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몰리는 호텔과 쇼핑몰 등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개별 구성원이 취향대로 휴식과 취미를 누릴 수 있는 시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도심 속 호텔과 쇼핑몰 등에서 가장 '핫한' 이색 공간은 책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신세계의 스타필드 코엑스몰은 오는 31일 센트럴플라자에 2800㎡(850평) 규모의 오픈 라이브러리를 열고 무료 운영한다. 보유장서는 5만여 권(잡지 400여 종 포함)으로 지하1층(취미·실용)에는 잡지, 여행, 스포츠, 미술, 자기계발, 육아, 가정, 1층(문학·인문)에는 소설, 비소설, 시, 에세이, 역사, 경제경영, 철학 등을 구비할 예정이다. 북콘서트, 시 낭송회, 인문학 토크쇼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워커힐 호텔 '워커힐 라이브러리'



그랜드 앰배서더 '이그제큐티브 라이브러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코엑스몰의 재도약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쇼핑몰 한가운데 열린 도서관인 '오픈 라이브러리'를 선보이는 실험에 나선다"며 "쇼핑과 어우러진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인 오픈 라이브러리는 강남 상권의 랜드마크이자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전국적인 복합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 자리한 워커힐 호텔은 독서하며 휴식할 수 있는 북카페 '워커힐 라이브러리'를 지난해 12월 오픈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힐링할 수 있는 이곳은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본관 2층에 위치해 있다. 1~2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하고 안락한 '프라이빗 존', 커피 및 주스, 차, 맥주 등 마실 거리를 판매하는 '카페&바'를 비롯해 3~4인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블루투스 헤드폰이 마련돼 있어 독서를 하며 음악 감상도 즐길 수 있다.

'워커힐 라이브러리'에는 3000여 권의 책이 비치되며 국내외 소설 및 에세이, 역사, 과학, 예술, 자기계발, 자녀교육, 취미 실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서가 라인업된다. 별도 이용료 없이 음료를 주문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특히, '카페&바'에서는 세계적인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폴 바셋'에서 워커힐만을 위해 개발한 '워커힐 시그니처 블랜드'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커피 맛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사후 200주년을 기념해 오스틴의 전집을 감상할 수 있는 티타임 프로모션이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책은 워커힐 라이브러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스타워즈 스페셜 에디션'으로 꾸민 공간 등 앞으로 시공사의 다양한 북큐레이션으로 '워커힐 라이브러리'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 역시 고객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이그제큐티브 라이브러리 &'를 선보인다. 호텔 14층에 위치한 '이그제큐티브 라이브러리 &'에는 문학, 경제, 역사, 여행, 매거진 및 해외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비치돼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으며, 고급 안마 의자와 리클라이너 소파를 갖춰 복합 힐링 스페이스로 재탄생했다. 특히 수려한 남산의 풍경과 채광을 즐기며 아늑한 휴식을 취할수 있으며 비숙박 고객도 이용 가능한 오픈 공간인 것이 특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폐 하객' 신경 쓰인다면… 은근하게 미모 업그레이드

매끈한 V라인으로 턱 선 살려주는
손유나의 '36.5℃ 브이캣 페이스 패치'

드라이기 없어도 볼륨 스타일링 연출
리빙프루프 풀 드라이 볼륨 블라스트



웨딩 시즌인 5월 주말마다 꽉 찬 결혼식 스케줄에 축의금도 부담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걱정되는 것이 그날의 스타일링이다.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메이크업에 과도하게 신경쓰다 보면 자칫 신부보다 튀어보이는 이른바 '민폐 하객'으로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 은근하면서도 외모를 한층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센스 있는 하객 뷰티 아이템으로 나만의 존재감을 부각시켜보자.

완벽한 메이크업을 방해하는 피부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아크로패스 트러블 큐어'를 추천한다. 트러블 케어에 효과적인 유효성분 1마이크로니들이 트러블 원인에 직접 침투해 빠르고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트러블 전용 패치로, 내성이 생긴 트러블 부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무표정하게 하객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활짝 웃자니 부담스러운 얼굴 라인이 고민이라면 '캣치 바이 손유나'의 '36.5℃ 브이캣 페이스 패치'로 매끈한 브이라인 턱 선을 살려보자. 피부 탄력 개선에 효과적인 페이스 패치로, 귀에 걸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성분이 진피층까지 흡수돼 효과를 높여 결혼식 하루 전 사용하면 다음날 갸름한 얼굴 라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늦잠으로 준비 시간이 확 줄어들어 메이크업에만 공들이고 헤어 스타일링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방지하기 위한 헤어 아이템도 있다.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는 아르간 오일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가꿔줄 뿐만 아니라 소량만 사용해도 엉킴 없는 모발로 만들어줘 헤어드라이 시간을 단축시킨다.

'리빙프루프 풀 드라이 볼륨 블라스트'는 특허 분자 성분 ETAS가 즉각적으로 모발 볼륨과 텍스처를 살려주는 헤어 스프레이다. 드라이기 없이도 볼륨 헤어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으로 뛰어난 볼륨 지속력이 특징이다.

자주 메마르는 입술 위에 계속 립스틱을 덧바르기 불편하다면 립 컬러와 보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컬러 립밤을 사용해보자. '멘소래담 립아이스 틴티드 컬러 레드'는 붉은 장미빛 컬러가 입술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생기 있는 입술을 연출하면서도 슈퍼 히알루론산 성분이 입술에 보습 성분을 제공해준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을 연출할 수 있어 수시로 덧발라도 부담 없고 바르는 횟수에 따라 다양한 레드톤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상품의 속살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즙'

胃癌 세포 성장 억제 '비타민 U' 다량 함유

위암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암 발생자 중 갑상선암 다음으로 위암이 많으며 2015년 암 사망자 7만6855명 중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8526명(11.1%)으로 3위에 올라 있다. 다행히 의학 발전으로 위암 치료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위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위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케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배추는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하는 식품이다. 양배추에는 비타민U가 다량 함유돼 있어 암 억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세포 실험에서 양배추 추출물을 위암 세포에 배양했더니 암세포 성장을 30% 정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배추즙을 투여했더니 위암 세포 성장이 42% 억제됐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나와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이 개발한 '한뿌리 양배추즙'은 100% 제주산 양배추에 위장 속을 편안하게 돕는 한방 성분과 과채를 담은 신개념 건강즙이다. 이 제품은 소화성궤양을 치유하는 비타민U를 최대

업계 첫 '저온 박막농축' 기술 도입
영양분 살리고 소화 기능 극대화
액상과당 없이 사과·매실만 첨가
양배추 향 제거해 목 넘김도 편안

로 담고, 끓이지 않아 양배추 특유의 역한 향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U 성분은 열에 약해 제조 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CJ제일제당은 업계 최초로 농축 공정에 '저온 박막농축 기술'을 도입, 비타민U의 생존력을 극대화했다. 섭씨 60~65도에서 최소 1시간~최대 하루 이상 달이는 로터리농축 공법과 달리 낮은 온도(섭씨 35~50도)에서 1분 만에 농축해 열 손실을 대폭 줄인 것이다. 그 덕분에 한뿌리 양배추즙은 원재료 고유의 맛과 향, 색깔, 영양 성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반 농축법으로 만든 양배추즙이나 푹 삶은 양배추물과 비교해 비타민U 함량이 2배 높게 출시됐다.

이 제품은 소화기 질환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한방 처방인 '동의보감 평위산(平胃散)'의 창출, 진피 등 생약 성분과 소화에 좋은 브로콜리, 무 등 과채까지 함유해 소화 기능을 극대화했다. 합성첨가물이나 액상과당 없이 사과와 매실만 넣어 목 넘김에 편안한 맛을 낸 것도 장점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도 평상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며 "한뿌리 양배추즙은 위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층과 소화력이 떨어지는 중년층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우리나라 첫 은행 since 1899

우리은행

톡 SORi 나는 금융

10개국어 실시간 톡번역부터 AI인공지능 음성송금 SORi까지–
위비플랫폼, 얼마나 더 똑똑해질거야?









WIBEE PLATFORM

EVENT.1 가입하고! 커피쿠폰 받GO!



기간: 2017년 4월 18일 ~ 6월 30일
대상: 위비플랫폼 (위비톡, 위비멤버스) 신규 가입고객
경품: 스타벅스 커피쿠폰 (선착순 100만명)

EVENT.2 위비톡하고! 노트북 받GO!



기간: 2017년 4월 18일 ~ 6월 30일 (7월 3일 추첨, 7월 5일 발표)
대상: 위비톡 이용고객 (기간 중 월 1회 이상 이용고객)
경품: 삼성노트북(8명) 갤럭시S8(10명) 삼성기어핏(100명)

위비뱅크
음성인식AI뱅킹부터 간편한 송금, 대출, 환전, 음악방송과 게임까지! 쉽고 재미있는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톡
10개국어 실시간 톡번역, 귓속말, 펑메시지, 여행, 맛집/재테크정보 등 스마트한 모바일 메신저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로바로! 달콤한 꿀머니가 쏟아지는 통합멤버십 서비스

위비캠
보정, 필터, 스티커, 뮤직피처링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위비톡 전용 셀카 APP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1588-5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2017.04.26 준법감시인-0870 심의필(유효기간 : 2017.06.30)

변호사·정치인·대통령… 그리고 '人間' 문재인을 읽다

고민정 부대변인 등 22명의 지지자가 바라본 文 대통령의 리더십 '그래요…'
촛불집회부터 당선까지의 과정 담은 포토에세이집 '새로운 대한민국과…'
'문재인의 서재' 등 관련 서적 봇물



그래요 문재인
고민정 외 21인
은행나무/ 1만3000원



문재인 스토리
함민복·김민정
모악/ 1만3000원



문재인의 서재
태기수
푸른영토/ 1만4500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식 취임하면서 서점가에도 '정치인 문재인', '인간 문재인'에 대한 궁금증을 책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열풍'이 불고 있다. 문 대통령 관련 서적 판매량이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 시민이 11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 결과를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라며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점가에도 '문재인 열풍'이 불고 있다. 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책을 통해 알고자 했고, 정치인 문재인이 아닌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이런 독자들의 요구에 주목받는 책들이 '그래요 문재인', '문재인 스토리',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과 사람 문재인', '문재인의 서재' 등이다.

19대 대선 당시 더문캠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한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비롯해 22명 지지자의 목소리가 담긴 '그래요 문재인'은 역사·사회·철학·문학적인 관점에서 왜 그가 리더가 돼야 하고, 무엇을 해낼 것인지에 대해 자문하고 자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고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선 통일된다. 이들이 말하는 '인간 문재인'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며, 약자를 대하는 특별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다. 또한 여자들의 연대를 결코 적대시하지 않으며, 문화와 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다. 한 지지자는 그의 인품에 대해 '기꺼이 서투르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문재인 스토리'는 문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던 이들의 사연을 모은 책이다. 어릴 적 친구, 학교 동창, 군대 동기, 이웃에 살던 사람, 함께 일했던 동료, 사회에서 만난 지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인간 문재인'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완성한다. 이 책은 그 그림을 통해 독자들이 '인간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속이 꽉 찬 사람인지, 가슴은 따뜻한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엉뚱한 일화 등을 엮어 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말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들의 사연을 엮은 저자 함민복·김민정 씨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사람과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그의 인품과 지향점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서, 문 대통령이 만나고 바라본 것들은 그가 꿈꾸는 세상이자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과 사람 문재인'은 김범 사진작가의 문 대통령 관련 포토에세이집이다. 지난해 말 촛불집회부터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사진기록을 통해 '인간 문재인'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책이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만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은 기록물로, 사진과 함께 수록된 짧은 글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태기수 작가가 쓴 '문재인의 서재'는 그야말로 '인간 문재인'의 삶과 정신을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책 읽기는 지금도 문 대통령의 주요한 일상의 한 부분이다. 그는 여전히 책을 통해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세상사를 들여다보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며 "어떨 땐 그가 활자 중독자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문 대통령이 읽은 책을 통해 그의 윤리와 정의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고자 했다. 태 작가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그가 읽은 책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날마다 900권… 서점가 휩쓴 '文風'

'운명' '대한민국이 묻는다' 등 관련 서적 20여종 인기
표지모델 '타임지 아시아판'은 역대 최다 하루 판매량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한 직후 서점가에 '문재인 대통령 열풍'이 불고 있다. 당선 직후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이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며 일부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 따르면 특히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은 20~3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 '대한민국이 묻는다', '운명에서 희망으로', '1219 끝이 시작이다' 등 문 대통령의 저서를 비롯해 문 대통령이 표지모델을 장식한 '타임 아시아판'도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교보문고는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은 현재 총 20종가량으로, 대선 전인 7일 판매량이 45권에 불과했지만 대선날인 9일 200권, 당선이 발표된 10일 1200권, 11일 1600권, 12일 1400권, 13일 1200권, 14~17일에는 일평균 900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 아시아판'은 6일부터 17일까지 1만5000부가 판매됐다. 특히 문 대통령 관련 서적을 구매한 것은 30대와 40대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30대 여성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여성도 17.2%로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예스24에서는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이 9일 출간 직후 단숨에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올라서면서 3일 만에 종합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특별판은 기존 내용에 지난해 촛불 집회와 뒤이은 대선 과정 등을 화보 형식으로 추가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 역시 문 대통령 관련 저서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대선 직후 문 대통령 관련 도서 판매량이 하루 만에 4~5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표지의 타임지는 하루 판매량이 7000권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일간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아주 경제적인 하루
박정호/ 웨일북/ 1만6000원

"출근길, 교통난을 해소하는 경제적인 방법이 있을까?", "과연 대충 결정하면 비경제적인 걸까?"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책 '아주 경제적인 하루'를 통해 이론이라는 틀 때문에 현실에 써먹지 못했던 10가지 경제 원리를 쉽고 명료하게 소개한다. 저자는 성과급을 받을 때, 선물을 주고받을 때, 투표를 할 때, 설문조사에서 답할 때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상황 속에 숨어 있는 경제 원리들을 독자에게 설명한다.

저자는 현장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 일터에서의 고민거리와 경제 원리를 따로 구분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단한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저자는 결정의 순간에 경제학을 유연하게 써먹은 기업들을 소개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경제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파격적인 임금 인상 이면에는 효율임금이론이 있었으며, 냉장고를 공짜로 나눠준 보쉬-지멘스는 고정비용 원리를 활용해 손해를 줄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일상 그 자체인 경제학을 경제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크리에이터의 질문법
윤미현/ 라온북/ 1만6000원

'휴먼다큐멘터리 사랑', '북극의 눈물', '공룡의 땅' 등 매 작품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고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한 윤미현 PD가 '크리에이터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탄생 비화를 전한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휴먼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연출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담아냈다. 저자는 휴먼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주인공의 마음을 읽기 위해, 시청자의 마음을 읽고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저자는 이처럼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 과정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던진 질문들은 주인공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시각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손가락 네 개로 88개의 건반을 넘나들며 희망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희아의 이야기를 1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제작한 MBC 최초 장기제작 휴먼다큐멘터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는 그렇게 탄생했다. '북극의 눈물'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현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원주민과 동물에 함께 초점을 맞춰 탄생한 작품이다. 환경문제를 딱딱하게 다루지 않고 북극곰과 원주민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가 대중의 공감을 샀다.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엔미래보고서 시리즈 8년간의 중요예측만 모은 핵심판

미래 30년을 살아갈 길잡이

"불황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10년 후에도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100세 시대라는데… 퇴직하면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인공지능한테 일자리 다 뺏긴다는데, 우리 아이 뭘 가르쳐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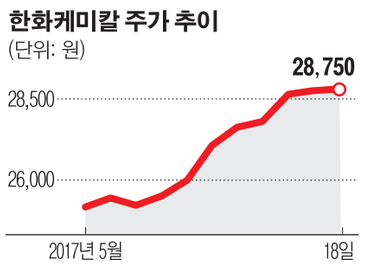
• 피할 수 없는 변화 2030-2050 메가트렌드
• 미래에 사라질 것들 2020년 한국에서 사라지는 7가지 | 2030년에 사라지는 11가지 | 일자리를 빼앗는 파괴적 기술들
• 미래에 생겨날 것들 미래 유망 직업 54 | 인공지능과 로봇에 뺏기는 일자리 대안 | 10가지 핫 미래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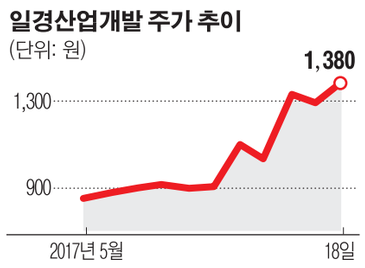
10년 후 먹고살 고민부터 30년 후 편안한 노후 실현까지
당신의 미래 생존율을 끌어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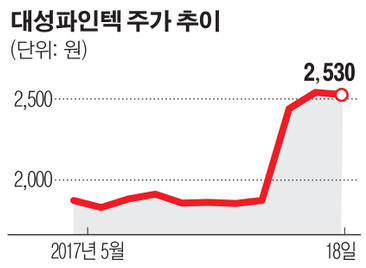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박영숙·제롬 글렌 | 648쪽 | 22,000원 | 교보문고

미세먼지 대책에 신재생株 '맑음'







대통령 직속 TF 설치…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태양광 시장 규모 현재 10조에서 74조까지 늘어날 전망
한화케미칼 8거래일 연속 상승… 대성파인텍·일경 상한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추진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의 주가 급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5일, '업무지시 3호'를 발표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정부의 상황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세먼지 피해 확산에 따른 원자력·석탄발전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강조했다. 향후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TF를 설치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로 늘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사업부문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공약대로 20%를 차지한다면 현재 10조 원 규모인 태양광 시장 규모는 약 74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태양광 설비용량이 1GW 확대되면 시장 규모가 1조5000억~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18일 증시에서 한화케미칼은 전날보다 0.17% 오른 2만87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17일에는 장중 2만925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노우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화케미칼의 올 1분기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원가 절감 및 제품가 안정화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2분기부터 태양광 부문의 물량 증가에 따라 이익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주가가 상승 국면에 돌입한 기업은 16일 상한가를 기록한 대성파인텍, 일경산업개발을 비롯해 에스에너지, SDN, 에스에프씨, 웅진에너지, OCI, 신성이엔지 등이다. 유니슨, 동국S&C, 태웅, 씨에스윈드 등은 풍력발전과 관련해 주가가 상승했다. 또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에코바이오, LNG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는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상승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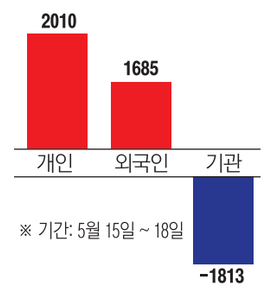
정연우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임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30년까지 총 11조6000억 원이 투자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 수혜가 가능한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두선 기자 sun@

美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에 外人 투심 발목

이주의 수급동향

1685억 사들이며 매수세는 여전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위	코웨이	3194	6위	현대모비스	271
2위	SK텔레콤	526	7위	NHN엔터테인먼트	194
3위	삼성전자우	395	8위	기아차	192
4위	삼성생명	392	9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49
5위	LG유플러스	320	10위	미래에셋대우	139

이번 주도 외국인은 우리 증시를 사들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부상하면서 매수 강도는 현저히 약해졌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부터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총 168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도 201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기관은 총 181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2290.65에서 2286.82로 0.17% 소폭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제임스 코미 전 FBI(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 트럼프 탄핵론이 가시화된 점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탄핵 이슈는 역대 최악으로 낮아져 있던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며 "이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또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속에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코웨이(3194억 원)였다. 올 1분기 실적 정상화 궤도에 오른 코웨이는 분기 배당 주당 800원 지급과 1% 이상의 자사주 소각 발표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 매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SK텔레콤(526억 원) △삼성전자우선주(395억 원) △삼성생명(392억 원) △LG유플러스(320억 원)를 많이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주가 자리 잡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현대모비스(271억 원) △NHN엔터테인먼트(194억 원) △기아차(192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149억 원) △미래에셋대우(139억 원) 등도 주목받았다.

한편, 기관은 △현대차(1106억 원) △SK(877억 원) △현대모비스(499억 원) △엔씨소프트(447억 원) 등을 사들여 뚜렷한 대형주 선호 현상을 보였다.

유혜은 기자 euna@

주인 바뀐 에치디프로, 인수주체 간 경영권 분쟁

자금동원 못하게 된 최초투자자
코스닥사 코디와 투자 이면계약
또다른 투자자 "코디측 배임" 반발

에치디프로가 최근 매각된 가운데, 인수주체 간 자중지란이 일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18일 IB업계에 따르면 CCTV카메라 렌즈 제조업체인 에치디프로를 인수한 케이에스와이(KSY) 내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기로 했던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면서 각종 송사에 휘말릴 전망이다.

에치디프로 최대주주에 올라선 케이에스와이는 올해 인수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FI 측이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자, 다른 투자자인 A 씨를 섭외했다. 하지만 애초 투자하기로 했던 FI 측이 코스닥 기업 코디를 통해 또다시 이면계약에 나서면서 결국 코디가 에치디프로의 지분을 인수하게 됐다.

이에 코디는 4월 21일 에치디프로 지분 14.29%(주식수 86만1326주)를 100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당국에 경영 참가 목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FI로 참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코디 측의 이면계약은 명백한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며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코디 측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코디 측은 인수한 지분에 대해서 권리만 따로 떼어내 제3자인 제미니밸류홀딩스(현 씨엔케이와이홀딩스)에 양도했고, 이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를 회사 측에 입혔다는 것이다. 즉, 지분은 코디가 매입하고 경영권은 제3자가 행사하게 만들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코디가 에치디프로 지분을 제미니밸류홀딩스에 매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지분 매각에 따른 공시가 전혀 없어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시종 기자 ssj@

노조위원장 선거 앞둔 거래소… 2파전 될 듯

이동기 노조위원장·서호석 부위원장
손영진 유가증권본부 차장 등 거론
노조서 동시에 2명 나올 확률 낮아

한국거래소의 제28대 노조위원장 선거가 다음 달 초 실시된다. 현재 2~3명의 후보자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2파전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6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선관위 위원장으로는 제27대 위원장 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던 오범식 안전관리실 차장이 선출됐다. 통상 선관위 위원장은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된다.

차기 노조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현재는 현 이동기 노조위원장, 현 서호석 노조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진과 손영진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운영팀 차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3명이지만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현 노조에서 2명이 동시에 선거에 나올 확률은 낮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른 시일 내에 후보 등록 기간 및 선거일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동기 노조위원장은 2년 전인 2015년 6월 11일 당시 이국철 후보를 제치고 최종 당선됐다. 당시 9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거래소 최대 현안이었던 코스닥 시장 분리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표심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동기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긍정적인 평가는 △코스닥 분리 저지 △성과연봉제 협의 거부 △투명한 조합운영 및 재정집행 △실무진급 직급 상승 등이 거론됐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거래소 직원은 "과거와 달리 호전적인 이미지는 약해졌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이 같은 흐름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연봉인상 등 복지 부분 개선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거래소의 IT 자회사인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노조인 기술직 노조(민주노총 소속)의 경우 최근 이덕기 위원장(지부장)이 연임됐다. 코스콤은 현재 2개의 노조가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직 노조(한국노총)로 위원장 선거는 내년 6월께 이뤄진다.

하유미 기자 jscs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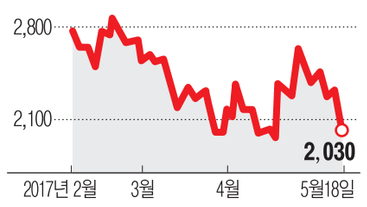
엔터기업 변신…內實 다지는 '온다 엔터'

1분기 매출 36억…78억 뚝
영업손실액 4억6000만 원
지난해 27억서 적자폭 급감
부진 광학렌즈 비중 줄이고
매출 82% 엔터부문에 집중

코스닥 기업 온다 엔터테인먼트가 적자폭을 줄여나가며 사업구조조정을 단행, 광학렌즈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에 매출액 36억 원, 영업손실 4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 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영업손실은 전년동기 26억7800만 원에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 주가 추이
(단위: 원)



회사 측은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광학렌즈사업 부문 구조조정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실사업 부문의 축소를 통해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면서 "실제로 기존 사업인 렌즈사업 부문의 매출비중은 18%, 엔터사업 부문이 82%를 차지하는 등 제조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한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신인 차디오스텍은 2014년 차바이오텍에서 인적분할돼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신규 설립됐다. 같은해 6월 코스닥 시장에 주권을 재상장했다. 이후 2016년 차디오스텍에서 주식회사 온다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휴대폰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렌즈 모듈을 생산·판매하는 광학사업과 드라마 및 영화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영업적자가 지속되었던 광학사업부를 축소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탈바꿈을 진행하고 있다.

온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결정을 공시한 바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배정자는 에스씨투자조합으로 이번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주주는 이화투자조합에서 에스씨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증자납입금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신사업의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록 사업구조조정으로 매출 규모는 감소했지만 적자사업에 대한 부실정리가 마무리되는 등 기존사업 정리와 함께 신규사업인 엔터사업 부문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신설한 음반사업부에서도 국내 유수의 공연기획사와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다방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상반기 중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보라티알, 내달 코스닥行 "종합식품기업 强者 될 것"

고품격 이탈리아 식자재 브랜드
169만주 공모…210억 조달 기대
올해 영업이익률 20% 달성 목표



"코스닥 상장을 일류 종합식품기업으로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식자재 브랜드를 보유한 보라티알이 다음달 코스닥에 상장한다. 김대영〈사진〉 보라티알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보라티알은 김 대표가 1993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이탈리아 식품 제조사 데체코, 메뉴 등으로부터 이탈리아 식자재를 수입하는 개인회사로 출발했다. 2000년에 이탈리아 식문화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이탈리아 식자재 중 고급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확대, 프리미엄 이탈리아 식자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미국, 멕시코, 태국 등 세계 각국의 60여 개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엄선해 수입하고 있다. 또한 파스타, 토마토 홀, 올리브오일 등 500여 개의 전문 식자재와 다양한 제품을 수입, 국내 총 1000여 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보라티알은 데체코, 롱고바디, 락탈리스, 메뉴, 이바라, 쥬카토 등 60여 개 해외 유명 브랜드와 독점계약을 체결,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면서 "국내 고급 호텔 및 이탈리아 레스토랑,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 수요처와는 20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탈리아 식자재 시장의 성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년간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 식자재는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보이며 식품시장 성장세를 선도했다.

김 대표는 "세계 외식시장에서 이탈리아 식자재 시장 규모는 자국 음식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에서만 중식, 일식보다 낮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국내의 이탈리아 식자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세 속에 보라티알은 올해 매출액이 예년 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품목 확대 및 히트상품 매출 증가 등으로 기존 사업이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치즈 사업 및 판매채널 확대 등의 신규사업 부문에서 추가 매출이 전망된다"며 "또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라티알은 오는 23~24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29~30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물량은 168만7000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2500~1만43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210억~241억 원의 자금은 물류시스템 재구축, 품목확대, 제조설비 증설 등에 투자된다.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일은 6월 8일이며,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화전기 '1억8000만' 中유아교육 시장 진출

〈0~6세 영유아 수〉

유락그룹과 영어유치원 설립
조기교육 시장 선점 목표

이화전기가 1억8000여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0~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화전기는 상해유락관리자문유한회사(이하 유락교육그룹)와 현지 영어유치원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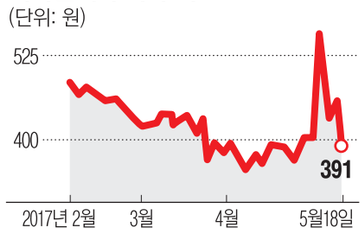
유락교육그룹은 중국에 1800여 개 이상의 학원에 온·오프라인 유락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약 350만 명의 학생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이용 학생수는 1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락그룹은 중국 상하이 A시장에 상장된 전광과기(시총 1조1000억 원)가 투자한 회사다.

이화전기는 세계적인 영어유치원 교육시스템인 영국 오비탈 에듀케이션그룹의 BIK(British International Kindergarten) 시스템을 중국 현지에 접목할 계획이다. 오비탈 에듀케이션 그룹은 케빈 맥니아니(Kevin Joseph McNeany) 회장이 2006년 설립한 교육전문 그룹으로 현재 전 세계 11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20일 중국 현지 사업을 위해 BIK 브랜드 사용권과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중국 상하이와 합비 지역의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코트라(KORTRA)가 발표한 '중국 프렌차이즈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0~6세 영유아는 약 1억8000만 명에 이르며, 매년 20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이 2자녀 정책으로 전면 변경되면서 영유아 조기교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화전기 주가 추이
(단위: 원)



중국 도시 가정의 교육비는 가정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빠들의 56.5%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조기교육 시장은 80% 정도가 미개척 상태로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3선 도시와 현급 도시까지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화전기 관계자는 "국내 유수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중국 현지 학원 등에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공급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락교육그룹이 보유한 교육 가맹점 시스템과 접목해 경쟁력 높은 교육 콘텐츠 공급을 통해 한중 교육사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에프엔씨엔터, 中합작법인 아이돌 데뷔 임박

쑤닝그룹과 손잡고 현지 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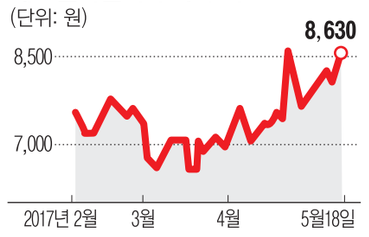
에프엔씨엔터가 중국 쑤닝유니버셜그룹(이하 쑤닝)과의 합작법인(JV)을 통해 현지 아이돌그룹을 준비 중이다. 특히 경영진 차원에서 쑤닝 그룹과 사업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어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에프엔씨엔터 관계자는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아이돌그룹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연습생 트레이닝 중"이라고 밝혔다.

에프엔씨엔터는 경영진 차원에서 쑤닝그룹과 사업을 공유하고 있어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의 끈을 이어왔다.

최근 중국 3대 음원 차트 중 하나인 QQ뮤직에서도 지난 3월 이후 사라졌던 K팝 차트가 복원되는 등 사드 한한령이 풀리는 조짐이 불고 있다. 이에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쌍방울, 마제스타 등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식시장은 물론 엔터 업계에서는 에프엔씨엔터를 주목하고 있다.

에프엔씨엔터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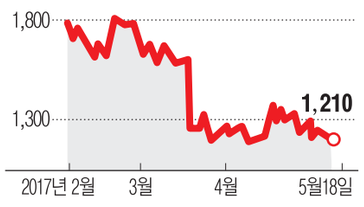
에프엔씨엔터는 지난해 중국 쑤닝과 JV 설립을 완료하고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소속 아티스트의 중국 진출과 현지 아이돌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쑤닝은 1980년대 설립돼 지난해 기준 중국 500대 민영기업에서 23위를 차지한 대기업이다.

에프엔씨엔터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14년 5.1%였으나 지난해에는 8%로 증가 추세다.

설경진 기자 skj78@

이그잭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이그잭스, OCA 양산

〈광학용 투명 접착필름〉

OCR 대체재…신성장동력 전망
시장규모 8000억…추가매출 기대

디스플레이 전자소재기업 이그잭스가 기존에 주력 제품 광학용 투명 접착액(OCR)의 대체재인 광학용 투명 접착필름(OCA)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추가했다.

이그잭스는 최근 충북 옥천 청산산업단지의 OCA(Optical Clear Adhesive) 생산라인을 확보한 뒤 제품 양산을 시작했으며, 최근 첫 출하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OCA는 'TSP(Touch Sreen Panel)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와 커버 윈도우'를 접착시키는 핵심 재료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8000억 원(2017년 기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그잭스는 UV resin(LCD 패널과 구동 FPCB와의 접착 및 전극부식을 방지하는 방습용 접착제) 등 OCR(Optical Clear Resin) 제품으로 15년 이상의 업력을 이어오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OCA는 그 핵심 재료로서 앞으로 시장 규모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OCA 사업 분야가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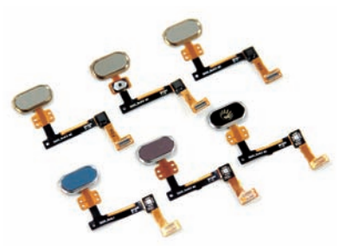
크루셜텍, 세계 첫 강화필름 지문인식 모듈 개발

경도 높이고 원가 현저히 낮춰
시장규모 年20억대 본격 공략

모바일 생체인증 전문기업 크루셜텍이 특수필름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BTP)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기존 프리미엄급 소재인 글라스와 유사한 수준의 경도와 디자인에도 원가는 현저히 낮다.

크루셜텍은 세계 최초로 특수 강화필름 소재를 이용한 지문인식 모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강화필름 BTP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글라스부터 크리스털 세라믹, UV코팅까지 폭넓은 시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최대 9H의 높은 표면경도에 고급스러운 광택을 내고, 컬러감도 우수하지만 가격은 글라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체 개발한 특수 배면코팅 기술을 적용해 강화필름 소재를 세계 최초로 지문인식에 도입했고, 제조 공정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크루셜텍의 특수 강화필름 소재를 이용한 지문인식 모듈. 이 제품은 기존 글라스 제품과 유사 수준의 경도와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원가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사진제공 크루셜텍

기존 GoT(Glass on Top) 지문인식 모듈 대비 공정을 단축해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수율 향상 효과도 있다.

크루셜텍 관계자는 "올해만 1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문인식 스마트폰 시장에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품질은 기본이고,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양산해 향후 중저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최근 이머징 마켓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피처폰까지 연간 20억대에 가까운 거대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적자를 감수하고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무리한 저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신규업체들과 달리 생체인식 통합 솔루션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크루셜텍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빗썸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소 오픈

거래액 400억…가상화폐 6위
새 화폐 '리플'도 상장 준비 중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소 빗썸이 이더리움 클래식(ETC)을 상장했다. 이로써 국내 3대 거래소 모두 이더리움 클래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빗썸은 19일 알트코인 중 하나인 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 거래소를 18일에 오픈 한다고 밝혔다. 4월 29일 대시코인, 5월 4일 라이트코인에 이어 5번째 거래소 상장이다. 빗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됐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시세 급등에 힘입어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더리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투자자의 심리가 쏠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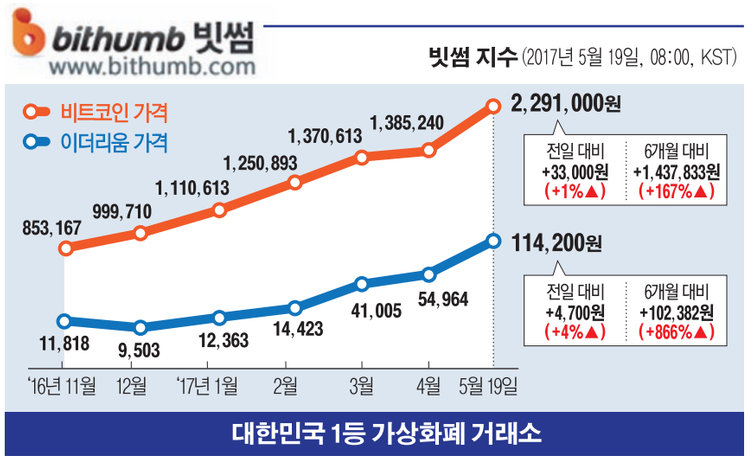
전 세계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힐스(Coinhills)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400억 원 이상의 세계시장 거래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800여 종에 달하는 전체 가상화폐 종류 중 6위에 달하는 순위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을 도입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이와 함께 새 가상화폐 '리플(Ripple)'을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최근 국내 시장에선 가상화폐 리플을 2곳의 거래소에 신규 서비스로 내놓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발행량이 383억 개로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해 최근 급격한 시세 변동이 나타났다.

한편 빗썸은 회원 수 43만 명 규모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랭킹사이트의 '코인힐스'에서 5위, '월드코인인덱스'에서는 전 세계 거래량 랭킹 2위를 기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스타일이 다르면?
카드선택도 달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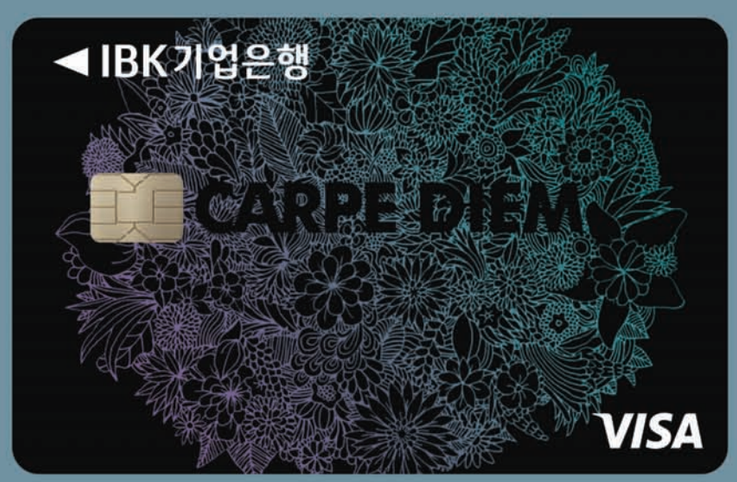




일년의 설렘카드
1년에 한번
최대 70만원 캐시백

70만원	50만원	30만원
5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0만원	10만원	5만원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본인과 가족카드 연간 이용금액 합산 기준)



일상의 기쁨카드
매월 영화 1만원 할인
대중교통, 편의점 할인까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할인
GS25, CU, 세븐일레븐, 올리브영 10% 할인
주요 커피전문점 /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20% 할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5% 할인
버스, 지하철 이용건당 200원 할인
전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LPG 포함)

(비씨카드 가맹점 기준)

※ 연체이자율(최저 연 19% ~ 최고 연 24%)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2b-06462호(2017.05.12 - 2018.05.1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7-1520호(2017.04.27) 게시기한(2018.05.11)
※ 연회비는 UnionPay 1만원/VISA 1만2천원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시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카드신청 전 상세한 혜택/이용조건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